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0년 2월

석사학위논문

한·중 의사 친족 호칭어 대조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산 영 춘

한·중 의사 친족 호칭어 대조 연구

A Contrastive Study on Fictive Kinship Terms of
Address in Korean and Chinese

2020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산 영 춘

한·중 의사 친족 호칭어 대조 연구

지도교수 강희숙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산 영 춘

산영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_____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_____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_____ (인)

2019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v
1.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2. 선행 연구	3
1.3. 연구 대상 및 방법	10
2. 이론적 배경	12
2.1. 한·중 친족 호칭어의 유형	17
2.2. 한·중 의사 친족 호칭어의 개념 및 발달 요인	25
3. 한·중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대조	29
3.1. 한·중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범위 선정	29
3.2. 한·중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대조	30
3.3. 중국어의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차용	40
4. 결론	57
<참고 문헌>	60

〈표 목차〉

〈표 1〉 선행 연구에 제시된 한국어 호칭어의 개념 및 유형 ·····	12
〈표 2〉 중국어 《現代漢語詞典》에 제시된 호칭어 유형의 정의 ···	14
〈표 3〉 선행 연구에 제시된 중국어 호칭어의 정의 ·····	15
〈표 4〉 중국어 호칭어의 유형 ·····	16
〈표 5〉 한·중 두 언어의 친족과 친척의 사전적 정의 ·····	17
〈표 6〉 한·중 부계 친족 호칭어의 체계 대조 ·····	19
〈표 7〉 한·중 모계 친족 호칭어의 체계 대조 ·····	21
〈표 8〉 한·중 부부계 친족 호칭어의 유형 대조 ·····	22
〈표 9〉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용어 및 개념 ·····	25
〈표 10〉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용어 및 개념 ·····	26
〈표 11〉 중국어의 차용어 유형화(한서영, 2015:267~268) ···	41
〈표 12〉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차용 형태 ·····	54

〈그림 목차〉

[그림 1] 한국어 의사 친족어 ‘어머니’의 차용 양상	44
[그림 2] 한국어 의사 친족어 ‘아버지’, ‘아빠’의 차용 양상	46
[그림 3] 한국어 의사 친족어 ‘아줌마’의 차용 양상	47
[그림 4] 한국어 의사 친족어 ‘아저씨’의 차용 양상	48
[그림 5] 한국어 의사 친족어 ‘이모’의 차용 양상	49
[그림 6] 한국어 의사 친족어 ‘언니’의 차용 양상	50
[그림 7] 한국어 의사 친족어 ‘누나’의 차용 양상	51
[그림 8] 한국어 의사 친족어 ‘오빠’의 차용 양상	52
[그림 9] 한국어 의사 친족어 ‘아가씨’의 차용 양상	53

ABSTRACT

A Contrastive Study on Fictive Kinship Terms of Address in Korean and Chinese

SHAN YINGCHU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dvisor: Prof. Kang Huisuk, Ph.D.

In this paper, We used a large number of data to analyzed and compared the use and the usage of fictive kinship terms of address in Korean and Chinese. And also analyzed the phenomenon of Chinese borrowing Korean fictive kinship terms of address. Through that we can understand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cultures. The contents analyzed and discussed by chapter can be described as below.

In Chapter 1, As an introduction to put forward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is paper, and analyzed the preceding study on kinship terms of address and fictive kinship terms of address in Korean and Chinese. On this basis, introduced the general direction and research methods of this paper, and presents the process of this paper.

In Chapter 2, We analyz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kinship terms of address and fictive kinship terms of address in Korean and Chinese in preceding study. The specific content is describ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and contrasted the system and types of kinship terms of address in Korean and Chinese. By analyzed the problem of decide on a name and the development reasons to Establish a theoretical basis for fictive kinship terms of address in Korean and Chinese.

In Chapter 3, We determine a range and contrasted the usage of fictive kinship

terms of address in Korean and Chinese. We analyzed the usage of fictive kinship terms of address is based on the corpus of ‘Korean Language and Information Sharing Center in National Institute’ and ‘Chinese balanced corpus of state language work committee’. And also analyzed the phenomenon of Chinese borrowing Korean fictive kinship terms of address with ‘Baidu’.

In Chapter 4, we summed up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paper. Trying to clarif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is paper and leaving out the future subject.

According to the above discussion, This paper is significant that analyzed and compared the use and the usage of fictive kinship terms of address in Korean and Chinese. Through that we can understand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cultures. However,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hanges in usage of fictive kinship terms of address in Korean and Chinese.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중 두 언어에서 사용되는 친족 호칭어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오늘날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 친족 호칭어의 유형 및 용법을 대조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와 중국어 친족 호칭어와 의사 친족 호칭어의 체계와 유형을 정리한 뒤, 두 언어의 구어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여 의사 친족 호칭어의 실제 사용 양상을 대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언어에서 나타나는 의사 친족 호칭어의 용법 대조 외에 중국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차용 현상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한다.

왕한석(2005:17)에 따르면 ‘호칭’ 또는 ‘호칭어(terms of address)’는 “화자가 대화의 상대방과 말을 하는 동안에 그 상대방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word), 어구(phrases) 또는 표현들(expressions)”이라고 할 수 있다.¹⁾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는 매우 좁은 의미의 호칭어이고, 넓은 의미에서 호칭어에는 호칭어와 지칭어 또는 호출어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호칭어란 사람이나 사물을 직접 부르는 말이며 지칭어는 화자에 따라 말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호출어는 청자로서 상대방의 주목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본 연구에서의 호칭어란 이와 같이 넓은 의미의 호칭어를 포괄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호칭어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친족 호칭어와 비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비친족 호칭어가 그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친족 호칭어를 친족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친족이 아닌 사람을 ‘아저씨/아주머니’, ‘할아버지/할머니’, ‘이모/ 언니’ 또는 ‘삼촌’ 등으로 부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에 전통적인 친족

1) 한국어의 ‘호칭어’에 대응되는 중국어 용어는 ‘칭위(稱謂)’이다. 그리고 ‘호칭어’와 ‘지칭어’ 개념은 ‘면칭(面稱)’과 ‘배칭(背稱)’으로 구분한다(고륙양, 2005:4). ‘면칭(面稱)’은 화자와 청자가 면대면으로 담화할 때 부르는 말이며 ‘배칭(背稱)’은 화자가 부르는 대상이 청자 외에 제삼자의 경우 사용되는 말이다.

호칭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이건범 외, 2018:121~122).

김광순(2015:177)에서는 친족이 아닌 대상에게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는 현상을 두고, 이러한 현상이 다른 언어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한국어만의 특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에서도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친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선 연령을 고려하여 ‘언니/누나(姐姐)’, ‘오빠/형(哥哥)’, ‘삼촌(叔叔)’, ‘이모(阿姨)’ 등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친족이 아닌 대상을 친족 호칭어를 사용해서 호칭하는 경우를 의사 친족 호칭어(fictive kinship terms of address)²⁾라고 한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교류를 계속해 왔다. 특히 중국에서는 ‘한류’³⁾ 열풍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인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를 차용하는 현상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예컨대 중국어에서는 ‘偶巴(오빠)’, ‘hiong(형)’, ‘歐尼(언니)’, ‘nuna(누나)’ 등과 같은 형태로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차용 현상은 인터넷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언어에서 의사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는 현상이 공통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의사 친족 호칭어가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 하고자 한다.

2) 왕한석(2005)에서 친족 호칭어의 하위 범주들이 비교적 복잡하게 발달한 사례들을 살펴본 것 중 가운데 최초의 연구 Evans-Pritchard, Edward Evan(1948)과 Braun(1988)은 친족 호칭인데 의사적(fictive) 용법으로 쓰이는 것을 ‘의사 친족 호칭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의사 친족 호칭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3) 유상철 외(2005:1)에 따르면 ‘한류’는 1999년 중국 베이징(北京)에 간행된 《청년보(青年報)》에서 한국의 대중문화와 연예인들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의 유행을 경계하는 뜻으로 처음 사용한 말이다.

1.2. 선행 연구

한국어 호칭어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초에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호칭어 사용 등 국어 생활의 규칙을 정하기 위한 화법 표준화를 제창하였다. 1992년에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표준화법 해설》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는 호칭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계기라 할 수 있다.

중국어의 호칭어는 성별, 연령, 화자와 청자의 관계, 사회적 지위와 직업이라는 일반적인 요인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역적 차이 등 특수한 요인에 따라 분화되기 때문에 한국어보다는 다소 복잡한 편이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호칭어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부터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일부 호칭어에 국한된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중국어 호칭어의 전반적인 체계를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 가운데 한국어 호칭어 체계의 수립에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황적륜(1975), 서정수(1984), 박갑수(1989), 이익섭(1994), 박정운(1997), 류재봉(1997)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이익섭(1994)에서는 한국어 호칭어를 대명사 호칭어, 성명파 직함 호칭어, 친족 호칭어로 분류하였다. 박정운(1997)에서는 한국어 호칭어를 이름 호칭어, 직함 호칭어, 친족 호칭어, 대명사 호칭어, 통칭적 호칭어, 기타 호칭어와 영형 호칭어 등 일곱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중국어 호칭어의 체계에 대한 연구로는 陳松岑(2005), 劉靜(2006), 胡明楊(2011) 등이 있다. 陳松岑(2005)에서는 호칭어를 친족 호칭어, 직업 호칭어, 직무 호칭어, 통칭 호칭어, 멸칭(蔑稱)과 천칭(賤稱) 그리고 이름 호칭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劉靜(2006)에서는 호칭어를 크게 친족 호칭어와 사회 호칭어로 분류하였다. 친족 호칭어는 종친(宗親) 호칭어, 외친(外親) 호칭어와 인친(姻親) 호칭어로 나누고 사회 호칭어는 직업 호칭어, 통용(通用) 호칭어, 성명 호칭어 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胡明楊(2011)에서는 호칭어를 친족 호칭어와 사회 호칭어로 나누었다. 이 연구에서는 친족 호칭어를

4) 이영천(2010:1)에 따르면 중국어는 크게 普通話(표준어)와 방언으로 나누어 있고 지역에 따라 방언이 다양하며 호칭어도 마찬가지로 발달되어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에서는 ‘할머니’라는 호칭어는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를 모두 아우르는 형태라 할 수 있는 한편, 중국어 호칭어의 경우 ‘친할머니’는 ‘奶奶’, ‘외할머니’는 ‘姥姥’라고 한다. 또한 방언에서는 ‘娘娘’ 등 여러 형태로 쓰인다는 점에서 방언 간 차이가 크지 않은 한국어 호칭어보다는 다소 복잡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친족을 부르는 말 가운데 호칭어와 지칭어를 포함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사회 호칭어의 경우 격식성에 따라 상대방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어라고 정의하였다.

위의 연구 성과를 검토한 결과, 호칭어의 유형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은 바로 친족 호칭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언어 모두 친족 호칭어를 비친족에게 사용하는 현상, 즉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현상⁵⁾이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남에도 이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였다는 점이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두 언어의 의사 친족 호칭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와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에 대한 연구는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기제에 대한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⁶⁾. 이외에도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의사 친족 호칭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와 한·중 의사 친족 호칭어 대조 연구 등이 있다.

먼저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양상을 사회언어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강희숙(2002), 김희숙(2003), 김혜진 외(2015), XINYANPING(2015) 등이 있다. 강희숙(2002)에서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업종(음식점, 미용실, 백화점 등)에서의 호칭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변이 양상과 그에 따른 변이형에 대한 화자의 언어 태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용실이나 식당 등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에게 ‘언니’, ‘아줌마’ 등 의사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김희숙(2003)에서는 의사 친족 호칭어를 ‘대용 호칭어’라고 보고, 그 사용에 대해 언어적, 사회적 변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사 친족 호칭어는 한국어 사회 내에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화자의 전략에서 발생한 호칭어라고 보았다. 또한 XIN YANPING(2015)는 2010년 이후에 방영된 드라마 세 편의 대본을

5) 김희숙(2000)에서에 따르면 사회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친족 호칭어를 친족이 아닌 대상에게 사용함으로써 친밀도나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는 현상이 있음을 밝혔는데, 이러한 현상이 곧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에 해당한다.

6) 다만 선행 연구에서는 ‘의사 친족 호칭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예컨대 강희숙(2002)에서는 ‘친족 호칭어의 확대 사용’으로, 김희숙(2003)에서는 ‘대용 호칭어’라 칭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도 선행 연구 모두 언어적·사회적 변수에 따라 친족이 아닌 상대방에게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사 친족 호칭어에 대한 연구라 할 만하다.

분석하여 친족 호칭어 ‘형’, ‘오빠’, ‘누나’, ‘언니’의 확장 의미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한 장소에서 상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손님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 친족 호칭어를 의사 친족 호칭어로 확대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혜진 외(2015)에서는 21세기 세종 계획의 구어 말뭉치와 준구어 말뭉치를 분석하여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친족 호칭어의 다양한 쓰임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친족 호칭어가 친족이 아닌 상대방에게 사용될 때 화자는 주로 청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사용하였으며, 의사 친족 호칭어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 친족 호칭어 가운데 ‘아가씨’⁷⁾라는 호칭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상대를 높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등 더 다양한 상황에서 쓰인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한편, 중국어의 의사 친족 호칭어 사용 양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로는 김현태(2005), 량홍(2013) 등이 있다. 김현태(2005)에서는 중국어 친족 호칭어가 의사 친족 호칭어로 확대 사용되는 배경, 양상, 특징, 사용 기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 중국어에서 의사 친족 호칭어의 의미가 어떻게 확대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화적 배경은 무엇인지를 기술하였다. 량홍(2013)은 연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친족 호칭어 가운데 부부 사이, 동기간 호칭어와 그 변이형에 대한 세대별 사용 양상을 밝히면서 의사 친족 호칭어로 사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기제에 대한 연구는 김재선(2012), 김광순(2015) 등이 있다⁸⁾. 김재선(2012)에서는 친족 호칭어 ‘아주머니/아줌마’, ‘언니’, ‘이모’, ‘아가씨’를 화용론의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해당 친족 호칭어가 의사 친족 호칭어로서 확대 사용되는 양상 및 기제에 대하여 밝혀내었다. 또한 성별, 연령, 공식성(격식성), 면식 여부, 청자에 대한 정보, 담화 상황, 감정 상태, 대우 및 예절, 호칭이 갖는 특성과 직업군 등 의사 친족 호칭어의 선택 요인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였다.

7) 《금성판 국어대사전》, 《연세 한국어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아가씨’의 의미를 “시집갈 나이의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과 “손아래 시누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가씨’가 “손아래 시누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친족 호칭어의 범위로 선정하였다.

8) 이와 관련하여 이익섭(1994)에서는 호칭과 경어법의 공기 관계를 밝혔고, 호칭과 경어법을 결정하는 연령, 직위, 향렬 등의 요인들을 ‘서열’과 ‘친분’으로 압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에서의 호칭 및 경어법 선택 요인을 ‘친족>직장(사회적)>서열>나이>친분’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의사 친족 호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호칭 및 경어법의 선택 요인은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기제와도 연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광순(2015)에서는 한국어 친족 호칭어 ‘형’, ‘오빠’, ‘누나’, ‘언니’의 사용 양상을 살펴 보았다. 이들 호칭어는 친족에게 ‘나이→달→시간→분9)’의 기준, 즉 화자와 상대방의 출생 시점에 따라 선택되며, 의사 친족 호칭어로서는 화자가 청자와의 친밀감을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사용 기제에 대한 연구로는 潘攀(1998), 王娜(2006) 등이 있다. 潘攀(1998)에서는 친족 호칭어의 확대 사용 현상을 친족 호칭어의 확대 사용 양상과 그 특징 및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6개의 친족 호칭어¹⁰⁾가 비친족에게도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친족 호칭어의 표준형과 의사 친족 호칭어로 쓰이는 변이형을 제시한 후, 대화 상황과 참여자의 사회적 변수에 따라 친족 호칭어 사용 양상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중국 전통 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친족 호칭어가 의사 친족 호칭어로 확대 사용하는 원인을 첫째, 전통 사회구조와 문화의 영향, 둘째,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영향, 셋째, 현대 사회에서 대화 상대를 부르는 적절한 호칭어의 부족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王娜(2006)에서는 중국어 친족 호칭어 확대 사용을 통칭칭위어(通称称谓語), 관계칭위어(关系称谓語), 직함칭위어(職銜称谓語), 친닐칭위어(親昵称谓語), 희학칭위어(戲謔称谓語)¹¹⁾ 등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친족 호칭어가 의사 친족 호칭어로 확대 사용되는 원인을 첫째, 전통적인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영향, 둘째, 유교 사상의 영향, 셋째, 현대사회의 의사소통 양상에 따른 필연적 산물의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친족 호칭어 확대 사용의 화용 원칙으로 친소원칙(親疏原則), 연령원칙(年齡原則), 지위원칙(地位原則), 예의원칙(禮貌原則) 등 네 가지가 있음을

9) 이 가운데 ‘시간’과 ‘분’은 주로 일란성 쌍둥이나 이란성 쌍둥이에게서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적인 선택 기준은 아닌 듯하다.

10) 潘攀(1998:34)에서 ‘爺(할아버지)’, ‘奶奶(할머니)’, ‘伯(큰 아버지)’, ‘叔(아저씨)’, ‘伯母(큰 어머니)’, ‘媽(어머니)’, ‘娘(아주머니)’, ‘嬸(아주머니)’, ‘姨(이모)’, ‘哥/兄(오빠/형)’, ‘嫂(형수)’, ‘姐(언니/누나)’, ‘兄弟(형제)’, ‘弟(남동생)’, ‘妹(여동생)’, ‘姑娘(아가씨)’ 등 총 16개의 의사 친족 호칭어를 제시하였다.

11) 王娜(2006:10)에서 통칭칭위어는 ‘女士(여사님)’, ‘先生(선생님)’ 등과 같은 통칭 호칭어를 말한다. 관계칭위어는 사람들 간의 사회관계를 반영하는 호칭어로, ‘朋友(친구)’, ‘老板(사장님)’ 등이 있다. 직함칭위어는 ‘大夫(의사선생님)’, ‘教授(교수님)’ 등과 같은 직함을 호칭어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친닐칭위어는 상대방에게 친밀감과 애정을 표현하는 호칭어로, ‘宝贝儿(애기)’, ‘哥们儿(형제)’ 등 그 예이다. 희학칭위어는 ‘小子(새끼)’, ‘小癩三(망나니)’ 등과 같이 거칠고 비속어적인 느낌이 강하다. 서로 친밀도가 높은 대화 참여자끼리 농담을 할 때 쓰이며, 그 외의 대화 상황이나 화자와 친밀하지 않은 상대방을 희학칭위어로 부를 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밝혀내었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의사 친족 호칭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는 최경희(2011), 박은정(2012), YANMENG(2018) 등이 있다. 최경희(2011)에서는 의사 친족 호칭어를 ‘친족 호칭어 대응형’이라 하였으며, 해당하는 호칭어의 비교 분석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학들에서 발행한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호칭어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각 교재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호칭어를 목록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의사 친족 호칭어 교육 내용을 ‘학교생활, 하숙집, 방 구하기, 길 묻기, 이웃 주민, 시장, 식당, 미용실, 서비스업’ 등의 상황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용법을 실제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은정(2012)는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에 관하여 화자와의 관계와 나이의 요인이 개입된다고 보면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인에 비하여 한국어 친족 호칭어 가운데 일부만을 의사 친족 호칭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점을 밝힌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중심으로 한 호칭어별 교육 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YANMENG(2018)에서는 한·중 친족 호칭어의 범위를 분석하였고 두 언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양상과 그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한·중 의사 친족 호칭어는 ‘남녀차별 현상’, ‘장유유서의 고정관념’, ‘손아랫사람인 상대방의 결혼 여부’, ‘기혼자가 배우자의 친족을 부를 때 배우자를 따라 부부간에 같은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는가의 여부’, ‘남존여비 관념’에 따라 사용 양상에 차이점이 발생함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TV 광고를 활용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개발하였다.

한·중 의사 친족 호칭어 사용 양상에 대한 대조 연구로는 胡曉清·李淑娟(2007), 왕혜방(2008), 김미라(2010), 장평(2016), 장환(2016), 왕문림(2017) 등이 있다. 胡曉清·李淑娟(2007)에서는 한·중 의사 친족 호칭어의 범위와 그에 따른 변이형의 화용 조건 및 기능을 분석하였다. 화용 조건은 대화 참여자의 연령이 주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화용 기능으로는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는 기능과 상호 존중의 기능이 있음을 밝혔다.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의사 친족 호칭어 연구가 어휘문화론 및 사

회언어학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왕혜방(2008)은 한국어와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모 호칭어를 중심으로 대조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중 의사 친족 호칭어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특성인 ‘남녀구분(男女區分)’, ‘남존여비(男尊女卑)’, ‘내외유별(內外有別)¹²⁾’, ‘장유유서(長幼有序)’, ‘친소분명(親疏分明)’, ‘매개호칭(媒介呼稱)’의 여섯 가지를 바탕으로 의사 친족 호칭어를 대조 분석하였다.

김미라(2010)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회 호칭어를 중점적으로 고찰한 연구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회 호칭어를 2인칭 대명사 호칭어, 이름 호칭어, 직업/직함 호칭어, 통칭/대체형 호칭어 등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그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친족 호칭어의 확대 사용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장평(2016)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가족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의사 친족 호칭어 사용 양상을 비교하였다. 두 언어 의사 친족 호칭어가 지니는 공통점으로는 남성 친족 호칭어보다 여성 친족 호칭어가 더 많고, 호칭 대상의 범위 및 상황이 서로 유사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차이점의 경우, 두 언어에서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주제, 장소, 형태, ‘남녀유별’의 관념, 사용 양상, 높임 표현 방법 등 여섯 가지로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장환(2016)은 한·중 두 언어의 의사 친족 호칭어 사용 양상과 그 문화적 의미에 대하여 살핀 연구로, 두 나라의 언어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이 중에 공통점은 모두 유교라는 전통 관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며, 차이점은 공통점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예의를 중시하는 정도가 다른 것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유교적 관념은 중국보다 훨씬 강하게 남아있다고 하였다. 한편 왕문림(2017)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사 친족 호칭어를 비교하여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여성 의사 친족 호칭어에 대한 비교를 통해 두 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국어에서의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차용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한신신·강희숙(2017), 강희숙(2018), 牛超慧(2018), 판영(2019) 등이 있다. 한신신·강희숙(2017)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12) 왕혜방(2008)에서 ‘내외유별(內外有別)’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외’, ‘외’ 등과 같은 글자를 첨가하는 방식이나 아예 다른 호칭어를 사용함으로써 모계호칭어를 부계호칭어와 차별화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페이지인 ‘웨이보(微博)’에 나타난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차용 현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네티즌들이 ‘오빠’, ‘언니’, ‘형’, ‘아저씨’, ‘아주머니’ 등 친족 호칭어를 들리는 대로 차용하는 양상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강희숙(2018)은 오늘날 중국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차용 현상을 온라인 매체와 일상생활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핀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오빠, 언니, 형, 누나, 막내, 아저씨, 아줌마’ 등 같은 다양한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들이 사용된 예시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의사 친족 호칭어가 중국어에서 차용되어 쓰이는 것을 규명하였다.

牛超慧(2018)에서는 중국어의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차용 현상에 대하여 차용 방식과 차용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중국어에서의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음역(音譯), 형역(形譯)¹³⁾, 의역(意譯), 반음역반의역(半音譯半意譯)¹⁴⁾, 로마자 표기’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오빠’, ‘아줌마’, ‘형’, ‘자기야’, ‘아저씨’, ‘누나’ 등의 차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판영(2019)는 여러 매체를 통해 중국 누리꾼들이 차용하는 한국어를 종결어미, 호칭어, 친교표현, 기타 표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언어 형식 가운데 중국어에서 차용된 한국어 호칭어의 경우 의사 친족 호칭어로 사용 빈도가 높은 ‘오빠’, ‘형’, ‘누나’, ‘언니’, ‘아줌마’, ‘아저씨’, ‘아가씨’ 등의 용법과 기능을 고찰하였다.

이상으로 한·중 두 언어에서 의사 친족 호칭어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사 친족 호칭어의 유형 및 특징을 전체적으로 대조함으로써 두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힌 연구 성과는 충분치 않다. 이 가운데 두 언어의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양상을 사회구조 및 문화적 관점에서 살핀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친족 호칭어의 체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오늘날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양상을 대조하여 살피고, 중국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차용 현상도 다룸으로써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

13) 牛超慧(2018:10)에서는 “形譯은 외국어의 필기 형태를 약간 조정하고, 자국어의 언어 습관에 알맞게 하거나, 외국어를 그대로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하였다.

14) 牛超慧(2018:13)에서는 “半音譯半意譯은 단어 한 부분의 앞이나 뒤를 音譯으로, 나머지 부분은 意譯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半音譯半意譯은 일반적으로 ‘音譯+意譯’, ‘意譯+音譯’, ‘音譯+의미형태소’ 등의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제시하였다.

어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1.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사 친족 호칭어를 대조 분석하고, 현재 중국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차용 현상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유형의 호칭어 사용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두 나라 언어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다양한 쓰임을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겠다. 한편, 중국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차용 양상을 중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¹⁵⁾’의 검색 결과에 나타난 사용 빈도를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논의 내용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친족 호칭어 및 의사 친족 호칭어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과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본 연구에서 이루어질 논의의 과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한·중 두 언어의 친족 호칭어와 의사 친족 호칭어 관련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와 중국어 친족 호칭어의 개념 및 특징을 설명하고, 두 언어 친족 호칭어의 체계와 유형을 대조한다. 또한 한국어와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용어 설정 문제와 발달 요인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어와 중국어의 친족 호칭어와 의사 친족 호칭어의 이론적 기반을 확립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한국어와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범위를 선정하고, 두 언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양상을 대조 분석한다.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양상은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에서 제공하는 말뭉치¹⁶⁾를 통하여

15) ‘바이두(百度)’는 인터넷 검색 엔진, 온라인 백과사전, 음악 재생 등의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의 최대 검색엔진 기업이다(두산백과 참조).

16) 한국에서는 ‘연세 한국어 말뭉치(1987~): 4200만 어절,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1995): 1000만 어절, 국립국어원 말뭉치(1992~): 6800만 어절’ 등 세 가지 말뭉치 자료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6800만 어절 가장 많은 어절을 가지고 있는 ‘국립국어원 말뭉치’를 분석 자료로 하겠다.

살펴보고, 중국어의 경우는 國家語委現代漢語平衡語料庫(이하 ‘語料庫’)¹⁷⁾의 말뭉치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두 언어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중국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차용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중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의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차용 방식을 유형화하고, 예시를 통하여 실제 차용 양상을 고찰하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또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언급함으로써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겠다.

17) 國家語委現代漢語平衡語料庫(www.cncorpus.org)는 중국에서 최신의 대규모 실제 텍스트 말뭉치 자료이다. 이는 중국 학자들이 학술 연구 목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뭉치 자료이니 본연구에서도 이를 분석 자료로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친족 호칭어와 의사 친족 호칭어의 개념 및 특징을 살핀 후, 두 언어의 친족 호칭어 체계를 고찰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발달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사 친족 호칭어는 친족 호칭어의 본래 의미에서 은유적으로 확장된 일종의 변이형이라 할 수 있는바, 친족 호칭어와 의사 친족 호칭어는 모두 호칭어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호칭어의 개념을 먼저 설명한 뒤, 친족 호칭어와 의사 친족 호칭어의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 모두 호칭어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부터이다. 그러나 연구자마다 관점에 차이가 있어 호칭어의 개념 정의가 통일되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두 언어에서 말하는 호칭어의 정의와 유형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어 호칭어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다룬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서정수(1984), 박갑수(1989), 황보나영(1993), 이익섭(1994), 이선화(2002), 고륙양(2005), 강소산·정은주(2013), 이정복(2014)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선행 연구에 제시된 한국어 호칭어의 개념 및 유형

선행 연구	개념	유형
서정수 (1984)	어떤 이를 부르는 데 쓰는 말	① 이름+씨 ② 대명사류 ③ 이름+(선생) ④ 직위+님 ⑤ 순위 친족명 ⑥ 존대의 가리킴말+께 ⑦ 께서 ⑧ 이름+친족명.
박갑수 (1989)	부름말	① 감탄사형 ② 성명-접사형 ③ 신분명 형 ④ 친족어 대용형 ⑤ 성명(-조사)형 ⑥ 대명사형 ⑦ 명사형 ⑧ 택호형 ⑨ 외래어형

황보나영 (1993)	상대방을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	①이름(이름-접사형) ②신분명(-접사형) ③친족명형 ④관계명/무관계명형 ⑤대명사형 ⑥감탄사형 ⑦영형 ⑧외래어형
이익섭 (1994)	상대방을 그 면전에서 직접 지시하는 형식	①대명사 호칭 ②성명과 직함 호칭 ③친족 호칭
이선화 (2002)	대화할 때 상대방을 부르는 말	①친족어형 ②명사형 ③직함형 ④처소지칭형 ⑤주의끝기형 ⑥생략형 ⑦이름형
고륙양 (2005)	화자와 청자 간의 부름말	①이름형 ②통칭형 ③직함/직업형 ④대체형 ⑤친족형 ⑥친족 호칭어 범화형 ¹⁸⁾ ⑦ 2인칭 대명사형 ⑧기타(호 호칭어, 출신지역+대, 성+가 등)
강소산· 정은주 (2013)	화자가 대화 상대방을 부르는 말	①가족형 호칭어 ②이름형 호칭어 ③대명사형 호칭어 ④직함형 호칭어 ⑤일반명사형 호칭어 ⑥자녀 이름 매개형 호칭어 ⑦주의 환기형 호칭어
이정복 (2014)	청자에 대한 부름말	①이름 호칭어 ②직함 호칭어 ③친족 호칭어 ④대명사 호칭어 ⑤통칭 호칭어 ⑥기타 호칭어

<표 1>에 따르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호칭어의 개념 정의와 유형화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부르는 말’이라 정의하였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유형화의 경우 선행 연구에 따라 적게는 3개, 많게는 9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친족 호칭어’, ‘이름 호칭어’, ‘직함 호칭어’, ‘대명사 호칭어’의 네 유형은 모두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편, ‘친족어 대응형¹⁹⁾’과 ‘친족 호칭어 확대 사용형’은 의사 친족 호칭

18) 친족 호칭어는 혈연과 혼인의 연계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친족 성원 간에 서로 부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지만 사용면에서는 친족 성원 이외의 대상에게도 확대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친족 호칭어가 사회호칭어로 차용되는 현상은 ‘친족 호칭어 범화형’이라고 한다(고륙양, 2005:50). 본 연구에서 용어 동일하기 위해 이하 ‘친족 호칭어의 확대 사용형’라고 한다.

19) 친족어 대응형이란 친족 관계가 아닌 사람들한테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실제 친족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부르거나 자칭(自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친족 호칭어의 사용은 가부장적 권위의 쇠퇴와 함께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호칭어가 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는 친족적인 친근감을 더하게 되었다

어를 달리 부르는 것에 해당한다.

중국어 호칭어는 《現代漢語詞典(현대한어사전)》에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사전에 따르면 중국어 호칭어는 ‘칭위어(稱謂語)’, ‘칭호어(稱呼語)’, ‘면칭(面稱)’, ‘배칭(背稱)’으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표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중국어 《現代漢語詞典》에 제시된 각 호칭어 유형에 따른 정의

이름	정의
칭위어 (稱謂語)	가족이나 그 외의 집단에서, 타인과의 상호 관계, 신분, 직업 등에 따라 얻는 명칭을 이른다. ²⁰⁾
칭호어 (稱呼語)	상대방과 인사할 때 사용되며,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는 명칭이다. ²¹⁾
면칭 (面稱)	부르는 대상이 옆에 있을 때 사용하는 호칭어이다. ²²⁾
배칭 (背稱)	부르는 대상이 옆에 없을 때 사용하는 호칭어이다. ²³⁾

<표 2>에서는 《現代漢語詞典》에서 제시한 호칭어의 각 유형에 따른 개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륙양(2005:4)에서도 사전에 제시된 바를 따라 중국어 호칭어의 개념을 ‘면칭’과 ‘배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그 외의 연구에서는 중국어의 호칭어를 ‘칭위어’ 또는 ‘칭호어’와 같은 것으로 보고, 호칭어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安英姬(1990), 衡志强(1994), 李厚一(1997), 馬宏基(1998), 李彥春(2000), 金炫兌(2001), 張魯寧(2001), 周建(2001), 曹煒(2005), 么孝穎(2008) 등이 있는데, 각 연구에 제시된 정의는 다음 표에 정리하였다.

(李載勝, 1999:54).

20) 人們由於親屬和其他方面的相互關係, 以及由於身分, 職業等等而得來的名稱。

21) 當面招呼用的表示彼此關係的名稱。

22) 被稱呼人在場時所用的稱謂語。

23) 被稱呼人不在場時所用的稱謂語。

24) 稱謂是表示人們之間的親屬關係, 社會關係, 或職務身份的名稱。稱呼是面對面用來表示彼此之間關係的名稱。

25) 稱呼語是在一定的語境, 一方對另一方的呼叫。

<표 3> 선행 연구에 제시된 중국어 호칭어의 정의

선행 연구	개념
安英姬 (1990)	칭위는 친족 관계, 사회 관계, 직업, 신분을 나타내는 명칭이며, 칭호는 면대면 상황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명칭이다. ²⁴⁾
衡志强 (1994)	칭호어는 상황에 따라 상대를 부르는 말이다. ²⁵⁾
李厚一 (1997)	칭위는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말이며, 칭호는 서로 인사할 때 쓰는 말이다. ²⁶⁾
馬宏基 (1998)	칭위어는 사회관계, 신분, 직업, 직위를 표시할 때 사용되는 명칭이고, 칭호어는 면대면 상황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명칭이다. ²⁷⁾
李彦春 (2000)	칭위어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단어이고, 칭호어는 면대면 상황에서 인사할 때 서로의 관계를 표시하는 단어로, 두 용어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²⁸⁾
金炫兌 (2001)	칭위는 인류 사회에서 가정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신분, 직업, 지위, 성별을 바탕으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일련의 명칭이다. ²⁹⁾
張魯寧 (2001)	의사소통 상황에서 서로를 부르는 말로, 칭호어는 칭위어와 같다. ³⁰⁾
周建 (2001)	칭위 체계는 명칭과 칭호를 포함한다. 사람들은 칭위어를 사용함으로써 서로 간의 각종 사회적 지위와 신분, 직업 등을 표시한다. 칭위어 가운데 사람을 부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칭호어라 한다. ³¹⁾
曹煒 (2005)	사회생활에서 사회적 관계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칭위어가 있다. 이 가운데 면대면 상황에서 상대방을 호칭할 때 사용하는 말은 칭호어라고 한다. 또한 사람 사이의 관계 및 평가를 반영하는 칭호어는 칭위어의 의미에 해당한다. ³²⁾
么孝穎 (2008)	상대방을 직접 부르는 데 사용하는 칭위어는 칭호어의 용법과, 사람 사이의 사회관계 및 역할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칭호어는 칭위어의 용법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³³⁾

26) 稱謂是介紹別人時用的詞語。稱呼是打招呼時用的詞語。

27) 稱謂語是人們表示彼此之間的社會關係,身份,職位,職業時用的名稱。稱呼語是人們面對面打招呼時稱呼對方的名稱。

28) 稱謂語是對他人介紹,表示身份的詞語,稱呼語是當面招呼用的表示彼此關係名稱的詞語,二者截然不同。

29) 稱謂是人類社會中體現特定的人在家庭或社會人際關係中的特定身分, 職業, 地位, 性別等而得來的反映人們的社會關係的一套名稱。

30) 人們進行交際就需要呼叫對方,稱呼語就是稱謂語。

31) 稱謂系統包括名稱和稱呼,稱謂語是人們用來表示彼此間的各種社會關係及身份,職業等的名稱,而稱呼語是稱謂語中那部分可以用來當面稱呼的名稱。

<표 3>을 살펴보면 중국어 호칭어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칭호어’ 또는 ‘칭위어’와 같은 것으로 본 연구가 있는 한편, 두 개념을 호칭어의 하위 범주로 설정하여 칭호어와 칭위어가 서로 같거나 다른 개념이라고 본 것도 있다. 이 가운데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에 비하여 후자의 연구가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중국어 호칭어의 개념을 정의한 선행 연구는 《現代漢語詞典》에서 제시한 ‘면칭’과 ‘배칭’으로 정의한 연구보다는 ‘칭호어’와 ‘칭위어’로 설정한 것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어 호칭어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어 호칭어를 유형화한 연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祝曉瑾(1992), 衛志强(1994), 郭繼慙(1995), 劉慧瑤(2010)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4> 중국어 호칭어의 유형

선행 연구	유형
祝曉瑾 (1992)	① 친족 칭호어(親屬稱呼語) ② 특수 친족 칭호어(特殊親屬稱呼語) ③ 이름 칭호어(姓名稱呼語) ④ 통용 칭호어(通用稱呼語) ⑤ 직함 칭호어(職銜稱呼語) ⑥ 영칭호어(零稱呼語)
衛志强 (1994)	① 이름형 칭호(姓名稱呼) ② 친족 칭호(親屬稱呼) ③ 직업/직함형 칭호(職銜稱呼) ④ 신분 칭호(身份稱呼) ⑤ 별명 칭호(別名稱呼) ⑥ 대체형 칭호
郭繼慙 (1995)	① 직함형 면칭 ② 이름형 면칭 ③ 친족형 면칭 ④ 기타 면칭
劉慧瑤 (2010)	① 친족 칭호(親屬稱呼) ② 유친족 칭호(類親屬稱呼) ③ 이름 칭호(姓名稱呼) ④ 직함 칭호(職銜稱呼) ⑤ 사회통용 칭호(社交通用稱呼)

<표 4>에 따르면 연구자에 따라 중국어 호칭어 유형을 최소 3개에서 최대 6개로 분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중국어 호칭어에서도 대부분 친족 칭호어, 직함 칭호어, 이름 칭호어, 대명사 칭호어의 네 가지 유형을 공통으로 제시

32) 稱謂語中表現人們相互之間各種社會關係及人們所扮演的社會角色等詞語可以當面稱呼時，這部分稱謂語是稱呼語，稱呼語中反應人們彼此間各種關係及所擁有的社會評價的詞語，是稱謂語。

33) 可以用於直接稱呼對方的稱謂語成員是稱謂語和稱呼語交叉和重疊的部分，可以表示相互間的社會關係和社會角色的稱呼語是稱呼語和稱謂語交叉重疊的部分。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1. 한·중 친족 호칭어의 유형

이 절에서는 호칭어의 하위 범주에 해당하는 친족 호칭어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친족’과 ‘친척’의 의미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두 용어를 구분하여 ‘친족’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친족 호칭어를 살펴보기에 앞서 친족(親族)과 친척(親戚)의 정의부터 살펴보겠다. 한·중 두 언어의 ‘친족’과 ‘친척’의 사전적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한·중 두 언어의 친족과 친척의 사전적 정의

명칭	《표준국어대사전》	《現代漢語詞典》
친족 (親族)	① 촌수가 가까운 일가. ≒친속. ② 생물의 종류나 언어 따위에서, 같은 것에서 기원하여 나누어진 개체나 부류를 이르는 말. ③ 《법률》배우자, 혈족, 인척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같은 가족/가문에 속한 사람 ³⁴⁾
친척 (親戚)	① 친족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② 성이 다른 일가. 고종, 내종, 외종, 이종 따위를 이른다.	자신의 가정과 혼인 관계를 맺은 사람과 그의 가족 구성원들. ³⁵⁾

<표 5>에서는 ‘친족’과 ‘친척’의 개념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두세 가지로 세분화하여 정의한 한편, 《現代漢語詞典》에서는 비교적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 사전에서 정의하는 친족의 개념은 한국어 사전에서의 정의 가운데 ①과 ③의 개념을 통합한 정의라 할 수 있다. 나머진 ②의 경우는 중국어에서 친족라기보다는 ‘종족(種族)³⁶⁾’의 의미와 가깝다. ‘친척’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어 사전에서의

34) 指家屬和同族; 家族。

35) 跟自己家庭有婚姻關係的家庭或它的成員。

36) 《現代漢語詞典》에서 제시한 ‘種族’의 정의는 “具有共同起源和共同遺傳特征的人群。(같은 것에

정의는 한국어 사전에서의 정의 ①과 ②를 통틀어 이르는 정의로 볼 수 있다. 앞선 논의를 정리하자면 ‘친족’은 ‘친족’과 ‘친척’의 개념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가족/가문’에서 법률적으로 자신의 가정과 혼인 관계를 맺은 사람, 그리고 그 가족/가문 구성원들을 이르는 말’이라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친족 호칭어의 개념 및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어의 친족 호칭어의 개념을 정의한 연구 성과 가운데 최재석(1963:13)에서는 “친밀한 감정과 존중의 의식이 강한 친족은 타자와 구별하기 위한 독특한 호칭”이라고 하였다. 강신항(1967:75)에서는 가족 명칭이란 우리나라 가족 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그 구성원들 상호 간의 호칭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운표(1986:97)에서는 “친척용어는 가족 상호 간에 서로 존중과 사랑의 감정을 표시하는 호칭”이라고 설명하였다. 고륙양(2007:10)에서는 친족 호칭어를 혈연과 혼인의 연계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친족 성원 간에 서로 부르는 말로, 친족 성원의 친분 관계의 정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친족 간의 계급적 지위를 표시하기도 한다고 정의하였다.

중국어의 경우 또한 陶立潘(1987:1)에서 “친족과 친족 관계는 여러 가족의 혈연 관계에서 발전된 혈친 집단과 배우자 관계에서 발전된 인척 집단의 종합이다.”³⁷⁾라고 정의하였다. 胡士云(2001:1)에서는 “친족은 출생 등으로 서로 혈연 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혼인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법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³⁸⁾라고 하였다. 劉慧瑤(2010:78)에서는 “친족 호칭어는 친족관계를 표시하는 호칭으로서 현실적인 친족 관계를 반영한다”³⁹⁾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친족 호칭어를 ‘가족 제도를 바탕으로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사이에 존중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부름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한국어와 중국어 친족 호칭어의 체계를 대조함으로써 두 언어 친족 호칭어 체계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륙양(2005)에서 제시한 대조 결과를 재정리하여 친족 호칭어를 부계 친족 호칭어, 모계 친족 호칭어, 부부계 친족 호칭어의 세 가지로 나누어 대조하도록 하겠다. 한국어 친족

서 기원하여 공통적인 유전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이르는 말”.

37) 親族和親族關係正是這些由若干家庭血緣關係發展起來的血親集團和由配偶關係發展起來的姻親集團的總和。

38) 親族是由出生等血緣關係彼此產生聯繫的人群，是由婚姻關係的產生聯繫的人群，是法律所認定的有一定範圍的人群。

39) 親屬稱謂是用來表明親屬關係的稱呼，是現實的親屬關係的反映

호칭어 체계는 국립국어원(2011)의 《표준 언어 예절》을, 중국어 호칭어 체계는 고륙양(2005)를 참고하고자 한다.

위에서 제시한 친족 호칭어 체계 가운데 부계 친족 호칭어 체계를 먼저 대조하겠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한·중 부계 친족 호칭어의 체계 대조

호칭대상	한국어		중국어	
	화자 성별	대응 호칭어	화자 성별	대응 호칭어
조부 (祖父)	남, 여	할아버지, 할아버님	남, 여	爺爺
조모 (祖母)	남, 여	할머니, 할머니님	남, 여	奶奶
바깥부모 (父親)	남, 여	아빠, 아버지(아버님)	남, 여	爸/爸爸
안부모 (母親)	남, 여	엄마, 어머니(어머님)	남, 여	媽/媽媽
아버지의 형 (父親的兄長)	남, 여	큰아버지(님), 둘째 큰아버지(님)	남, 여	大伯/伯伯/大爺 (二 大爺, 三大爺...)
아버지의 형수 (父親的嫂子)	남, 여	큰어머니(님), 둘째 큰어머니(님)	남, 여	大媽/大娘 (二大娘, 三大娘...)
아버지의 동생 (父親的兄弟)	남, 여	삼촌, 아저씨 결혼 후: 작은아버지, 숙부 (님), 작은어머니, 숙모(님)	남, 여	叔/叔叔 (二叔, 三叔...)
아버지의 누이 (父親的姐妹)	남, 여	고모(님), 고숙모(님), 아주머니	남, 여	姑姑/姑媽 (大姑, 二 姑, 三姑...)
아버지의 매부 (父親的姐妹的丈夫)	남, 여	고모부(님), 고숙부(님), 아저씨	남, 여	姑父 (大姑父, 二姑父, 三姑父..)
형/오라버니 (兄)	남, 여	형, 형님 오빠, 결혼 후: 오빠, 오라버니	남, 여	哥/哥哥 (大哥, 二 哥, 三哥...)
손위누이/언니 (姐姐)	남, 여	누나, 결혼 후: 누님 언니, 결혼 후: 언니, 형님	남, 여	姐/姐姐 (大姐, 二 姐, 三姐...)/名字

남동생 (弟弟)	남, 여	이름, 애, 결혼 후: 이름, 동생	남, 여	名字/弟弟(二弟, 三弟...)
여동생 (妹妹)	남, 여	이름, 애, 결혼 후: 이름, 동생, (○○)어멈(엄마)	남, 여	名字/妹妹(老大, 老二, 老三...)
아들 (兒子)	남, 여	이름, 결혼 후: (○○)에비, (○○)아범	남, 여	名字(暱稱)/兒子
딸 (閨女)	남, 여	이름, 결혼 후: (○ ○)어미, (○○)에미,(○○)어멈	남, 여	名字(暱稱)/閨女
사위 (女婿)	남, 여	성+서방, 여보게	남, 여	名字
며느리 (兒媳)	남, 여	아가, (○○)어미, (○○)어 멈, (○○)에 미, 애야	남, 여	名字
형/오라버니의 아내 (兄長的媳婦)	남 여	형수(님), 아주머니(님) 언니, 새언니, (중년이후)형님	남, 여	嫂子(大嫂, 二嫂, 三嫂...)
손위 누이/ 언니의 남편 (姐姐的丈夫)	남 여	매형, 자형, 형님 형부	남, 여	姐夫
남동생의 아내 (弟弟的媳婦)	남 여	제수씨, 계수씨 올케, (○○)엄마, (○○)어 멈	남, 여	弟妹/名字
여동생의 남편 (妹妹的丈夫)	남 여	매부, 매제, (○○)서방 (○○)서방님	남, 여	妹夫/名字
손자 (孫子)	남, 여	이름, 결혼 후: 자녀의 호칭 어와 같음	남, 여	名字(暱稱)/孫子
손녀 (孫女)	남, 여	이름, 결혼 후: 자녀의 호칭 어와 같음	남, 여	名字(暱稱)/孫女
조카 (侄兒)	남, 여	이름	남, 여	名字(暱稱)/侄兒
조카딸 (姪女兒)	남, 여	이름	남, 여	名字(暱稱)/ 姪女兒

<표 6>에서 제시된 내용 가운데 공통된 사실은 한·중 두 언어의 친족 호칭어가 비
 교적 고정적이며, 단일하게 쓰인다는 것이다. 또한 차이점은 화자의 성별에 따라 호칭
 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아버지의 형제자매에 대한 호칭은 동일하나, 연령 및 결혼
 여부에 따라 호칭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 한국어와 중국어의 모계 친족 호칭어 체계를 대조하기로 한다. 각 언어에서의 혈연관계 및 인척 관계에 따른 친족 호칭어를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한·중 모계 친족 호칭어의 체계 대조

호칭대상	한국어		중국어	
	화자 성별	대응 호칭어	화자 성별	대응 호칭어
외조부 (外祖父)	남, 여	외할아버지(님), 할아버지(님)	남, 여	姥爺/外公
외조모 (外祖母)	남, 여	외할머니(님), 할머니(님)	남, 여	姥姥/外婆
어머니의 형제 (母親的兄弟)	남, 여	외삼촌, 삼촌, 아저씨, 외숙부(님)	남, 여	舅/舅舅(大舅, 二舅, 三舅...)
어머니의 자매 (母親的姐妹)	남, 여	이모(님), 이숙모(님), 아주머니(님)	남, 여	姨, 姨媽(大姨, 二姨, 三姨...)
외삼촌의 아내 (舅舅的媳婦)	남, 여	외숙모(님), 아주머니(님)	남, 여	舅媽(大舅媽, 二舅媽, 三舅媽...)
이모의 남편 (姨母的丈夫)	남, 여	이모부(님), 이숙부(님), 아저씨	남, 여	姨夫(大姨夫, 二姨夫, 三姨夫...)
외종, 이종 형/오라버니 (表哥)	남	형, 형님	남, 여	表哥/哥哥
	여	오빠, 오라버니(님)		
외종, 이종 손위 누이 언니 (表姐)	남	누나, 누님	남, 여	表姐
	여	언니		
외종, 이종 남동생 (表弟)	남, 여	이름, 동생, 아우(님)	남, 여	名字/表弟
외종, 이종 여동생 (表妹)	남, 여	이름	남, 여	名字/表妹
외종, 이종 조카/딸 (侄兒/女)	남, 여	이름	남, 여	名字
외종, 이종 형/ 오라버니의 아내 (表哥的媳婦)	남	형수(님), 아주머니(님)	남, 여	嫂子
	여	언니		

외종, 이종 손위 누이/언니의 남편 (表姐의丈夫)	남	매형, 형님	남, 여	姐夫
	여	형부		
외종, 이종 남동생의 아내 (表弟的媳婦)	남	제수씨, 제수님	남, 여	弟妹
	여	올케, (○○)엄마		
외종, 이종 여동생의 남편 (表妹的丈夫)	남	매부, 매제, (○○)서방	남, 여	名字/妹夫
	여	(○○)서방(님)		

<표 7>에 따르면 한국어와 중국어의 조부모 호칭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의 ‘외할아버지/외할머니’는 지칭어로 사용되는 경우, 보통 부계와 모계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반면, 호칭어로 쓰일 때에는 ‘외’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어에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 각각 대응되는 ‘姥爺/外公’, ‘姥姥/外婆’ 가운데 ‘外’를 포함한 형태의 경우, 오늘날 중국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모계 친족의 지위 상승으로 부계와 모계를 나누는 의미가 사라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언어 사용자의 사고에 따라 언어 형식의 의미가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한·중 두 언어의 부부계 친족 호칭어 체계를 대조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8> 한·중 부부계 친족 호칭어의 유형 대조

호칭대상	한국어		중국어	
	화자 성별	대응 호칭어	화자 성별	대응 호칭어
처의 아버지 (岳父)	남	장인어른, 아버님	남	爸/爸爸
처의 어머니 (岳母)	남	장모님, 어머니(님)	남	媽/媽媽
처의 오빠 (妻子的哥哥)	남	처남, 형님	남	哥/哥哥
처의 언니 (妻子的姐姐)	남	처형	남	姐, 姐姐
처 남동생 (妻子的弟弟)	남	처남, 이름	남	名字/弟弟/兄弟

처의 여동생 (妻子的妹妹)	남	처제	남	名字/妹妹
손위 처남의 댁 (妻子哥哥的家室)	남	아주머니(님), (○○)어머니	남	嫂子
손아래 처남의 댁 (妻子弟弟的家室)	남	처남의 댁, (○○)어머니	남	弟妹/名字
처 언니의 댁 (妻子姐姐的家室)	남	동서, 형님	남	姐夫
처 여동생의 남편 (妻子妹妹的家室)	남	(○○)서방, 동서	남	妹夫/名字
시아버지 (婆家的父親)	여	아버님	여	爸/爸爸
시어머니 (婆家的母親)	여	어머니(님)	여	媽/媽媽
시숙(남편의 형) (婆家丈夫的兄長)	여	아주버님, (큰)서방님	여	哥/哥哥
시동생 (婆家丈夫的兄弟)	여	도련님, 결혼 후: 서방님	여	弟弟/名字
손위 시누이 (婆家的姐姐)	여	형님, 큰누님, 결혼 후: 큰아가씨	여	姐/姐姐
손아래 시누이 (婆家的妹妹)	여	아가씨, 결혼 후: 작은 아가씨	여	妹妹/名字
시숙의 아내 (婆家哥哥的妻子)	여	형님	여	嫂子
시동생의 아내 (婆家弟弟的妻子)	여	동서, 아우님	여	弟妹/名字
손위 시누이의 남편 (婆家姐姐的丈夫)	여	아주버님, 서방님	여	姐夫
손아래 시누이의 남편 (婆家妹妹的丈夫)	여	서방님	여	妹夫/名字
부부 (夫婦)	남,여	이름+씨, 여보, 여봐요, (○○)아버지/어머니, (○○)아빠/엄마...	남,여	名字/暱稱(親愛的)/老公/老婆/ 孩子他爸/孩子 他媽/老伴..

<표 8>을 살펴보면 한국어 부부계 친족 호칭어에서 처가와 시가의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 다르게 부르는데 중국어 부부계 친족 호칭어에서 처가나 시가으로 구분하지 않고 부계 친족 호칭어와 일치하게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한국어에서 손위 처남의 맥을 ‘아주머니(님)’으로 부르고, 시숙의 아내를 ‘형님’이라 부르는 한편, 중국어에서는 ‘嫂子’이라 부르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또한 아내나 남편의 손위 형제나 자매를 부르는 말로, 한국어에서는 ‘처남, 처형/형님’, ‘아주버님/(큰)서방님, 형님/큰누님/큰아가씨’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의 형과 누나에 각각 대응되는 호칭어인 ‘哥哥/哥哥’, ‘姐姐/姐姐’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부부계 친족 호칭어에서는 중국어보다 한국어의 체계가 비교적 복잡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부계’, ‘모계’, ‘부부계’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한·중 친족 호칭어의 체계를 대조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한·중 친족 호칭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친족 호칭어 체계는 모두 복잡하게 발달하였다. 특히 부계 유형의 친족 호칭어가 모계, 부부계 친족 호칭어보다 더욱 발달하였는데, 이는 가부장제에 따른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두 언어 모두 부부계 호칭어에서 매개 호칭어가 발견된다. 주로 ‘자녀의 이름+친족 호칭어’의 형식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한국어에서는 ‘○○ 엄마/아빠’, 중국어에서는 ‘○○ 他媽/他爸’로 부른다.

셋째,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외(外)’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부계와 모계를 구별한다. 예컨대 한국어에서는 부계 조모를 ‘할머니’로 부르는 한편, 모계 조모를 ‘외할머니’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어에서도 ‘孫女’와 ‘外孫女’의 형식으로 부계호칭어와 모계호칭어를 구분한다.

넷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친족 호칭어는 모두 성별 구분이 있지만 한국어의 성별 구분이 더욱 세밀하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는 화자와 상대방의 성별에 따라 상대방을 ‘오빠/언니’와 ‘형/누나’로 부르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 ‘哥哥/姐姐’로 부른다.

다섯째, 한국어의 친족 호칭어 체계에서 중국어보다 높임법이 더욱 강조된다. 한국어에서 ‘친족 호칭어+님’의 형식으로 청자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그러한 형식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섯째, 한국어에서는 손아랫사람인 청자에 대한 친족 호칭어의 선택에서 결혼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족 호칭어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름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2. 한·중 의사 친족 호칭어의 개념 및 발달 요인

이 절에서는 의사 친족 호칭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구체적으로 의사 친족 호칭어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 의사 친족 호칭어를 칭하는 용어를 살피고, 친족 호칭어에서 의사 친족 호칭어로의 발달 요인을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의사 친족 호칭어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친족이 아닌 대상에게 사용하는 친족 호칭어를 이른다. 다시 말하면 친족 관계가 없는 대상을 친족 호칭어를 사용해서 호칭하는 경우를 의사 친족 호칭어라고 한다(왕문립, 2017:29).

다음으로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정의 및 용어 문제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정의와 용어 문제를 다룬 연구는 박정운(1997), 김희숙(2003), 고륙양(2005), 주홍(2005), 이민(2008), 최경희(2011), 박은정(2012), 초안비(2016)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용어 및 개념

선행연구	용어	개념
박정운 (1997)	일반화된 친족 호칭어	청자가 외관상의 나이로 보아 전형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그러한 친족어로 불릴 수 있으리라는 판단하에서 사용하는 호칭어 유형.
김희숙 (2003)	대용친족 호칭어	1차 사회의 친족 호칭어가 현대 2차 사회내의 비친족 집단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현상.
고륙양 (2005)	친족 호칭어의汎化(확대 사용)	혈연과 혼인의 연계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친족 성원 간에 서로 부르는 말인 친족 호칭어가 사용면에서 친족 성원 이외의 대상에게도 사용되는 현상.

주홍 (2005)	친족 호칭 확대 사용	친족 호칭을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함에 있어서는 화자가 자신의 연령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직접 호칭하거나 청자를 기준으로 그와 어울리게 간접 호칭하는 현상.
이민 (2008)	친척어 확대 사용형	한국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친척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친척 호칭어를 사용하는 현상.
최경희 (2011)	친족어 대응형	친족이 아닌 사람들한테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
박은정 (2012)	비친족 대상 친족 호칭어	친족 명칭이 일반적인 호칭으로 전환되어 사용되는 것.
초안비 (2016)	친족형 호칭어	친족이 아닌 다른 상대에게 친족 호칭어를 확대 사용하는 현상.

<표 9>을 통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의사 친족 호칭어를 ‘일반화된 친족 호칭어’, ‘대용친족 호칭어’, ‘친족 호칭어의 汎化(확대 사용)’, ‘친족 호칭 확대 사용’, ‘친척어 확대 사용형’, ‘친족어 대응형’, ‘비친족 대상 친족 호칭어’, ‘친족형 호칭어’ 등의 용어로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 친족 호칭어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가족이라는 1차 사회에서 사용되던 친족 호칭어가 보다 더 넓은 범위를 지니는 2차 사회로 확대되어 사용되는 현상이라 정의하였다.

한편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용어와 개념에 대한 연구는 潘攀(1998), 吳穎慧(1992), 劉靜(2006), 王娜(2006), 周錦國(2011), 郜培芳, 任強(2017)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0>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용어 및 개념

선행연구	용어	개념
潘攀 (1998)	친족 칭위어의 확대 사용 (親屬稱謂語的泛化)	친족 칭위어로 비친족 성원을 부르는 현상은 현대 중국어에서 매우 보편적이다. 이러한 현상을 친족 칭위어의 확대 사용이라고 부름. ⁴⁰⁾

40) 用親屬稱謂語稱呼非親屬成員是現代漢語口語中非常普遍的現象，這種現象被稱為親屬稱謂語的泛化

41) 彼此之間沒有親屬關係的人，廣泛使用表示親屬關係的稱謂互相稱呼。

42) 用表示親屬關係的親屬稱謂語稱呼非親屬的鄰里，朋友或陌生人。

吳穎慧 (1992) 劉靜 (2006)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擬似親族呼稱語的使用)	친족 관계가 없는 사람을 널리 친족 관계 호칭어로 부르는 현상. ⁴¹⁾
王娜 (2006)	친족 칭위어의 확대 사용 (親屬稱謂語泛化)	친족 관계를 표시하는 친족 호칭어로 비친족인 이웃이나 친구, 낯선 사람을 부르는 현상. ⁴²⁾

<표 10>에 따르면 중국어 연구자들은 의사 친족 호칭어를 주로 ‘친족 칭위어의 확대 사용’와 ‘의사 친족 호칭어’로 명명하고 있다. 의사 친족 호칭어의 정의는 친족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친족 칭위어를 친족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 연구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두 언어에서 의사 친족 호칭어의 발달 요인 및 실제 사용에서 의사 친족 호칭어를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한국에서는 의사 친족 호칭어의 선택과 관련하여 대부분 호칭어의 선택과 관련지은 연구가 많으며, 이들 연구는 대화 참여자 및 대화 상황에 따른 요인과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요인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대화 참여자 및 대화 상황에 따른 의사 친족 호칭어의 선택 요인과 관련하여서, 이 선화(2002)에서는 호칭어의 선택 요인을 ‘대화 상황 요인’과 ‘대화 참여자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장소와 격식성은 전자에, 성씨, 연령, 직업, 유대감과 감정 상태는 후자에 포함된다. 박상천(2004)은 공식성 유무와 사전 지식 유무가 포함되는 ‘상황 변수 및 참여자 배경’, 친밀도와 의도성 유무가 포함되는 ‘참여자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호칭어의 선택에 개입한다고 하였다. 김재선(2012)에서는 호칭어의 선택에서 참여자 요인(성별, 연령), 상황 요인(공식성, 면식 여부, 청자에 대한 정보, 담화 상황 등), 심리적 요인(감정 상태, 대우, 예절), 사회적 요인(호칭에 갖는 특성, 직업군)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의사 친족 호칭어의 선택 요인의 경우, 김희숙(2003)에서는 1차 사회의 친족 호칭어가 현대 2차 사회 내의 비친족집단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현상은 한국 사회가 빠르게 핵가족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화자가 무의식적으로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을 일으켰다기보다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사

친족 호칭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어적 요인, 산업 구조적 요인, 사회 관습적 요인, 성 중립성 추구라는 네 가지를 들었다.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은 중국어에서도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의사 친족 호칭어의 선택 및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중들이 의사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는 원인은 陳月明(1990), 王娜(2006), 劉居紅(2008)에서 다른 바 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모두 대화 참여자 및 대화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陳月明(1990)에서는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친족 관계에서는 주로 대화 참여자의 성별과 연령이 주요인인 것과 달리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성별, 연령, 직위, 직업, 친소관계, 결혼여부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王娜(2006)에서는 대화 참여자 간의 친소관계, 연령, 사회적 지위가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劉居紅(2008)에서는 의사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중국 역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종족 제도와 전통 사회 구조, 감정 원칙과 사람들의 문화 심리, 사회 호칭어의 부족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원인의 경우, 중국은 유교의 영향을 받는 나라로, 유교의 핵심인 감정과 이성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친족이 아닌 타인에게 친족 호칭어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표현하고 서로의 마음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 원인과 관련하여서는 사회 호칭어의 부족으로 사람들이 친족 호칭어를 사회 호칭어로 전용하여 쓰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대방의 신분, 대화 상황, 대화 목적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에 사람들이 적당한 사회 호칭어를 찾기 힘들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대화 참여자 및 대화 상황에 따른 요인’과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대화 참여자의 나이, 직위, 친소관계 등이 있으며, 후자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 구조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은 곧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화자의 대화 전략이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적절한 호칭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3. 한·중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대조

이 장에서는 한·중 두 언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양상을 대조하여 두 나라 의사 친족 호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경우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의 말뭉치 자료를, 중국어는 語料庫의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여 두 언어의 의사 친족 호칭어 사용 양상과 언어문화적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3.1. 한·중 의사 친족 호칭어의 범위 선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 친족 호칭어란 친족이 아닌 대상에게 사용하는 친족 호칭어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친족이 아닌 상대방을 의사 친족 호칭어로 부르는 것은 곧 화자가 상대방을 자신의 친족과 같이 가깝게 여김으로써 친근감을 표시하고,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임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보다 친밀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호칭어 체계가 비교적 복잡하게 발달하기는 하였지만, 친족이 아닌 대상에게 쓸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인 편이다. 한국어에서는 예컨대 박갑수(1989)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언니’, ‘오빠’, ‘형’⁴³⁾을, 고륙양(2005)에서 ‘아줌마/아주머니’, ‘아가씨’, ‘언니’, ‘아저씨’, ‘오빠/형’,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초안비(2013)에서 ‘아저씨’, ‘아주머니’, ‘언니/누나’, ‘오빠/형’,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등을 의사 친족 호칭어로 선정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한국어에서의 의사 친족 호칭어는 본래 조부모와 부모, 형제나 자매 관계 외에도 어머니 항렬의 형제자매를 부르는 친족 호칭어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는 潘攀(2002)와 유수(201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爺爺(할아버지)’, ‘奶奶(할머니)’, ‘伯伯(큰아버지)’, ‘叔叔(아저씨 또는 삼촌)’, ‘伯母(큰어머니)’, ‘媽(어머니)’, ‘娘(아주머니/아줌마)’, ‘姨(이모)’, ‘哥(오빠/형)’, ‘嫂(형수)’, ‘姐(누나/언니)’,

43) 이 연구에서는 이들 친족 호칭어가 직접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직업+친족 호칭어’ 또는 ‘이름+친족 호칭어’의 형식으로 비친족 관계인 상대방을 호칭하는 데에 쓰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弟(남동생)’, ‘妹(여동생)’, ‘姑娘(아가씨)’ 등이 있다. 이들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는 한국어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중국어에서 아버지 항렬의 순위 형제를 부르는 ‘伯伯(큰 아버지)’, ‘伯母(큰어머니)’⁴⁴⁾와 형의 아내를 부르는 ‘嫂(형수)’가 의사 친족 호칭어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한국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의사 친족어를 ‘조부모 항렬’, ‘부모 항렬’, ‘동렬(同列)’이라는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조부모 항렬의 의사 친족 호칭어는 ‘할아버지/爺爺’, ‘할머니/奶奶’가 있다. 부모 항렬에 해당하는 것은 ‘어머니/媽’, ‘아버지/爸爸’, ‘아줌마, 아주머니/伯母, 娘’, ‘아저씨/伯伯’, ‘이모/姨’, ‘삼촌/叔叔’이 있다. 동렬의 경우는 ‘누나, 언니/姐’, ‘오빠, 형/哥’ ‘아가씨/姑娘’까지 총 11쌍으로 분류할 수 있다⁴⁵⁾.

3.2. 한·중 의사 친족 호칭어 사용 대조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 선정한 한국어와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할아버지/爺爺’, ‘할머니/奶奶’, ‘어머니/媽’, ‘아버지/爸爸’, ‘아주머니, 아줌마/伯母, 娘’, ‘아저씨/伯伯’, ‘이모/姨’, ‘삼촌/叔叔’, ‘누나, 언니/姐’, ‘오빠, 형/哥’, ‘아가씨/姑娘’를 조부모 항렬, 부모 항렬, 동렬의 순서대로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조부모 항렬은 ‘할아버지/爺爺’, ‘할머니/奶奶’ 두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2) 조부모 항렬의 의사 친족 호칭어

가. 할아버지/爺爺

ㄱ. A: 어떤 손님이었어?

B: 할아버지 손님이요.

ㄴ. 老爺爺激動极了, 喃喃地說: “宝贝, 我的宝贝!”

(할아버지가 흥분하면서 “보배야, 나의 보배야!”라 말했다.)

ㄷ. 周爺爺... (주씨 할아버지...)

44) 친족 호칭어 ‘伯伯’과 ‘伯母’의 본래 의미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인데, 중국에 일상생활에서 친족 관계 외의 상황에는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 친족 호칭어 ‘伯伯’과 ‘伯母’는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의미로 살펴보겠다.

45) ‘嫂’, ‘弟’, ‘妹’는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친족 호칭어인 ‘형수’, ‘남동생’, ‘여동생’이 의사 친족 호칭어로 사용된 예가 없어 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나. 할머니/奶奶

- ㄱ. 정년을 한 이년 삼년 앞두고 할머니 선생님이 한 분 오셨어요.
- ㄴ. 박스 할머니가 오시면 박스를 다 가져다 줘...
- ㄷ. 陸奶奶把小孫女帶得遠遠的. (육씨 할머니가 손녀를 멀리 데리고 갔다.)
- ㄹ. 求爺爺告奶奶 (아무나에게 닥치는 대로 부탁하다)
- ㅁ. “老奶奶, 你不知道……” (“할머니, 모르세요...”)

(2가)는 ‘할아버지/爺爺’, (2나)는 ‘할머니, 奶奶’에 대한 한국어와 중국어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해당 예문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비친족인 대상의 나이와 외형적 특징을 바탕으로 대상을 ‘할아버지, 爺爺’, ‘할머니, 奶奶’라 칭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에 다른 말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어의 경우 한국어와는 다른 독특한 용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가ㄴ), (2나ㄴ)과 같이 ‘爺爺’나 ‘奶奶’ 앞에 접두어 ‘老’를 붙여 ‘老+爺爺/奶奶’의 형식으로 사용하는 한편, (2가ㄷ), (2나ㄷ)과 같이 ‘성씨+爺爺/奶奶’의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하다. 또한 (2나ㅁ)에 제시된 ‘求爺爺告奶奶’는 성어로, 이 예문에 쓰인 의사 친족 호칭어 ‘爺爺’, ‘奶奶’는 나이가 많다는 뜻이 사라진 ‘아무나’를 뜻한다. 여기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어떠한 일을 부탁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부탁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부모 항렬의 의사 친족 호칭어 ‘어머니/媽’, ‘아버지/爸爸’, ‘아주머니, 아줌마/伯母, 娘, 嬸’, ‘아저씨/伯伯’, ‘이모/姨’, ‘삼촌/叔叔’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의사 친족 호칭어 가운데 부모 항렬 유형 안에서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어머니/媽’, ‘아버지/爸爸’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3) 부모 항렬의 의사 친족 호칭어: ‘아버지/爸爸’, ‘어머니/媽’

가. 아버지/爸爸⁴⁶⁾

- ㄱ. 소연 씨 아버님 같은 경우는...
- ㄴ. 某某+爸爸, 如“馬云爸爸”(○○+아버지. 예: 마윈 아버지)
- ㄷ. 遊戲用語, 如“紅爸爸”, “藍爸爸”

46) (3)에서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爸爸의 예시는 중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의 자료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게임 용어. 예: 빨간 아버지, 파란 아버지)

ㄹ. 品牌+爸爸, 如“漫威爸爸”(브랜드+아버지. 예: Marvel 아버지)

나. 어머니/媽媽

ㄱ. 재현이 어머님하구 또 친구세요.

ㄴ. 吳媽媽回答：“你以為我啥都不懂嗎?”

(오씨 어머니는 “내가 아무 것도 모를 줄 알았나?”라고 대답했다.)

(3가ㄱ), (3나ㄱ), (3나ㄴ)의 각 예문에서 화자는 부르하고자 하는 대상을 자신의 부모와 비슷한 연령이라 판단하여 ‘아버지’, ‘어머니’, ‘媽媽’로 부르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는 (3가ㄱ)과 (3나ㄱ)과 같이 ‘아버지’, ‘어머니’에 존칭의 접미사 ‘님’이 결합한 ‘아버님’과 ‘어머님’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고, (3나ㄴ)와 같이 ‘성씨+媽媽’의 형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의사 친족 호칭어 ‘爸爸⁴⁷⁾’의 경우, (3가ㄴ~ㄹ)과 같이 “○○爸爸”의 형식으로 쓰여 한국어와 구별되는 특수한 쓰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3가ㄴ)에서는 중국의 대기업 ‘알리바바(阿里巴巴)’의 대표인 마윈(馬云) 회장을 ‘馬云爸爸’로 부르고 있는데, 이 예문에서 ‘爸爸’는 주로 부유하고 유능한 사람을 의미한다. 나이와 외모가 ‘아버지’의 주요한 선택 요인인 한국어와는 달리, 중국어에서는 재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의사 친족 호칭어 ‘爸爸’의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3가ㄷ)에서는 중국의 인기 게임 ‘왕자영요(王者榮耀)’의 캐릭터 가운데 ‘紅BUFF’와 ‘藍BUFF’의 ‘BUFF’가 ‘爸爸’와 발음이 비슷하여 생겨난 별명이다. 이러한 용법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온라인 매체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3가ㄷ)에서는 미국의 대표 만화인 ‘마블 코믹스(Marvel Comics)’의 창시자 ‘스탠 리(Stan Lee)’를 ‘爸爸’라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창시자의 의미와 더불어 스탠 리의 작품인 마블 코믹스의 유명세까지 포함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3가ㄴ)와도 비슷한 용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 항렬의 의사 친족 호칭어 가운데 본래 부모와 같은 항렬의 남성과 여

47) ‘爸爸’의 쓰임은 2010년 10월 16일 중국의 李啓銘(이철명)이 1명 사망, 1명 상해의 교통 사고를 일으켰다. 검거 당시 이철명은 뉴스 인터뷰에서 “有本事你們告去, 我爸爸是李剛”(고소할 테면 해봐라. 우리 아버지는 이강(李剛) 국장이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爸爸’라는 의사 친족 호칭어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성을 부르는 데 쓰이는 ‘아주머니, 아줌마/伯母, 娘, 孀’, ‘아저씨/伯伯’의 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대한 예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4) 부모 향렬의 의사 친족 호칭어: ‘아주머니, 아줌마/伯母, 娘’, ‘아저씨/伯伯’

가. 아주머니, 아줌마/伯母, 娘

ㄱ. 이 아주머니가 굉장히 베테랑이에요. 그 자리에서 오년 이상 그~ 행사 때마다 이강주 행사를 하신 분인데...

ㄴ. 그 하숙집은 아줌마 혼자 있었다.

ㄷ. 아줌마 조금 줘 주세요!

ㄹ. “于伯母, 我是沈彭的儿子, 專門來看您!”

(우씨 아주머니, 저는 심팽의 아들입니다. 특별히 뵈러 왔습니다.)

ㅁ. 他望望楊母, 又瞅着丁少奎, “伯母, 少奎, 你們說這樣妥不妥?”

(그는 양씨의 어머니를 보고 또 정소규를 봤다. “아주머니, 소규야. 이렇게 해도 되나요?)

ㅂ. 我丈夫姓丁, 大家都喊我丁大娘。

(내 남편의 성은 정씨이다. 그래서 다들 정씨 아줌마라고 부른다.)

ㅅ. 也不睜開眼看看老娘是誰!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누군지 잘 봐!)

나. 아저씨/伯伯

ㄱ. 경찰 아저씨... 편의점 아저씨... 기사 아저씨

ㄴ. 결혼했으면 ‘아저씨’, 안 했으면 ‘삼촌’⁴⁸⁾

ㄷ. 通過勞動, 我才感到農民伯伯的辛苦。

(농사를 직접 지음으로써 농부 아저씨의 수고를 알게 됐다)

ㄹ. 還有什么穆阿姨、方叔叔、徐伯伯、阿山舅舅……他們不是來借錢, 就是借宿。

(목씨 이모, 방씨 삼촌, 서씨 아저씨, 아산 삼촌……. 그 사람들은 항상 돈을 빌리거나 우리집에서 자려고 한다.)

(4가)에서는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인 ‘아주머니, 아줌마’와 그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인 ‘伯母, 娘’, (4나)에서는 ‘아저씨’와 ‘伯伯’에 대한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아주머니, 아줌마/伯母, 娘’, ‘아저씨/伯伯’의 사전적 정의는 모두 ‘남남끼리에서 성인 여성/남

48) 유튜브(Youtube)에서 4.1만명의 구독자가 시청하는 채널 ‘맛삼인’의 영상 ‘오빠, 삼촌, 아저씨를 구분하는 기준’ 참조.

성을 예사롭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라는 의미가 있어 의사 친족 호칭어로서의 용법을 사전에서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주머니, 아줌마/伯母, 娘'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결혼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칭하는 것이나, '아저씨/伯伯'은 차이가 있다. 한국어 '아저씨'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 남성을 모두 부르는 데에 쓰이는 한편, 중국어 '伯伯'은 '아주머니/아줌마, 伯母/娘'와 같이 부르는 대상이 기혼 성인 남성이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4가)에서 '아주머니/아줌마', '伯母/娘' 모두 화자가 잘 모르거나 친밀하지 않은 상대방에 한하여 화자가 추측한 상대방의 성별 및 나이와 외모에 따라 호칭어가 선택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한국어의 경우 (4가ㄷ)에서는 식당에서 일하는 나이 든 여성 종업원을 '아줌마'로 부르는 특징적인 용법을 보인다. 중국어의 경우 한국어와 다르게 '伯母'는 (4가ㄹ)과 같이 '성씨+伯母'의 형식으로 쓰이고, '娘'은 예시 (4가ㅂ)에서 '성씨+大+娘'나 (4가ㅅ)과 같이 '老+娘'의 형식으로 쓰이기도 한다. 여기에서 '大'와 '老'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나, (4가ㅅ)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老娘'이라 높여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존경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자신을 스스로 높임으로써 상대방에게 잘난 체를 하거나 거만하게 굴 때, 그리고 상대방과 말싸움을 할 때, 스스로를 높임으로써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쓰임은 한국어의 '아주머니/아줌마'에는 없는 특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저씨, 伯伯'의 경우 (4나ㄱ, ㄷ)과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경찰', '기사', '農民(농부)' 등 상대방의 직업명이나 '편의점' 등 상대방의 직업이나 특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호칭어 앞에 붙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외에 (4나ㄹ)은 다른 용법과 같이 상대방의 성씨에 호칭을 붙여 사용하는 중국어에서의 보편적인 용법을 그대로 따른 예이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아저씨'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 남성이라면 모두 '아저씨'로 통칭될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 방송 대사를 예문으로 인용한 (4나ㄴ)은 기혼 여부에 따라 '삼촌'과 '아저씨'가 나뉜다고 하여 사전적 정의와 일반적인 언중의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편 중국어 '伯伯'은 화자의 아버지의 나이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여겨질 때 부르는 의사 친족 호칭어라는 점에서 한국어와는 차이가 있다.

부모의 형제를 일컫는 친족 호칭어 '이모/姨', '삼촌/叔叔'의 의사 친족 호칭어로서의

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구체적인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부모 항렬의 의사 친족 호칭어: ‘이모/姨’, ‘삼촌/叔叔’

가. 이모/姨

ㄱ. 그 이모가 필리핀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ㄴ. 이모 반찬 주세요!

ㄷ. 有个營業員阿姨和藹地說:“小朋友, 你要買什么動物啊?”

(한 직원 이모는 “꼬마야, 어떤 동물을 살 거야?”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ㄹ. 90后老阿姨... (90년대에 태어난 나이 든 이모)

나. 삼촌/叔叔

ㄱ. “아빠, 그 삼촌은 왜 전철을 피하지 못했어?”⁴⁹⁾

ㄴ. 식당에서 일하는 아저씨를 ‘삼촌’이라고 부른다.

ㄷ. 瞧我進門, 母親喚我過去, 稱那人叔叔。

(어머니는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 사람을 삼촌이라고 부르렴.”이라고 말씀하셨다.)

ㄹ. “警察叔叔, 警察叔叔, 嗚嗚。”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씨. 후후.”)

(5가)를 살펴보면, ‘이모’는 (5가ㄱ)과 같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을 칭할 때 쓴다는 점에서 ‘어머니’, ‘아주머니, 아줌마’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모’는 ‘어머니’, ‘아주머니, 아줌마’보다 나이가 적은 여성을 가리키며, 앞의 두 의사 친족 호칭어와 달리 기혼 여성임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외에도 (5가ㄴ)과 같이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을 칭하는 데에 쓰기도 하는데, 중국어 예문인 (5가ㄷ)에서도 그러한 용법이 나타난다. (5가ㄹ)에서는 ‘阿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이 표현은 최근 중국의 20~30대 여성들이 자신을 ‘老阿姨’라고 자조적으로 부르는 유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老阿姨’ 또는 ‘阿姨’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조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으로 상대 여성을 지칭한다면 상대 여성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5나)에서 ‘삼촌’ 또한 의사 친족 호칭어로 쓰일 때 ‘이모’와 같이 ‘아버지’, ‘아저씨’보다는 나이가 적으나, 화자 자신보다는 나이가 많은 남성을 이른다. 이는 (5나ㄱ~ㄷ)에서 모두 확인되는바, (5나ㄱ)은 어린 아이의 시선에서 쓰인 기사 제목으로, ‘구의역 스

49) 오마이뉴스 2016년 6월 14일 기사(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7622) 참조.

크린도어 사망 사고(九宜驛-死亡事故)⁵⁰⁾로 사망한 피해자를 ‘삼촌’으로 부르고 있다. (5나ㄴ, ㄷ)에서는 성인 화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을 부르는 데에 ‘삼촌’/‘叔叔’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5나ㄷ)에서는 ‘叔叔’이 한국어의 ‘아저씨’와 같은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한국어 ‘아저씨’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伯伯’으로, 자신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叔叔’은 그와 반대로 나이가 자신의 아버지보다 적으며, 자신보다 많은 남성에게 사용한다. 따라서 의미하는 정도가 다를 뿐 ‘경찰 아저씨’와 ‘警察叔叔’는 서로 대응될 수 있으며, ‘경찰 삼촌’이나 ‘警察伯伯’으로 바꾸어 쓰일 때 어색하다.

한편, 동렬 관계의 의사 친족 호칭어 ‘누나, 언니/姐’, ‘오빠, 형/哥’ ‘아가씨/姑娘’의 용법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가운데 ‘누나, 언니/姐’의 용법부터 고찰하기로 한다. 그 예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6) 언니, 누나/姐

가. 언니, 누나

- ㄱ. (미용실에서) 언니 피부가 너무 좋아요!
- ㄴ. (남성 화자가) 언니 여기 단무지 좀 주세요!
- ㄷ. 어! 누나 웬일이예요?
- ㄹ. 누님 쓰러지시는군요!

나. 姐⁵¹⁾

- ㄱ. 王姐, 阿宝的事, 全靠你啦! (왕씨 언니/누나, 아보의 일 잘 부탁할게요!)
- ㄴ. 也不想想姐姐我是誰! (내가 누군지 몰라?)
- ㄷ. 小姐姐⁵²⁾, 能加个微信嗎? (작은 언니/누나, 위챗 친구로 추가해도 돼요?)

‘언니, 누나’/‘姐’는 모두 상대방이 화자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여성에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화자와 상대방의 관계가 친밀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한국어 예문 가운데 (6가ㄱ, ㄴ)과 같이 미용실이나 식당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50)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九宜驛-死亡事故)는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 업체 직원 김 아무개(1997년생, 향년 19세)가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이다.

51) 중국어에서 ‘姐’와 ‘哥’를 사용하는 대상의 성별 구분이 없으므로 예시를 별도로 제시하겠다.

52) (6나)에서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小姐姐’의 예시는 중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의 자료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부를 때에는 상대방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언니’는 화자가 상대방보다 나이가 많아도 서로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되며, 그 반대의 상황이더라도 ‘아주머니/아줌마’, ‘이모’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불쾌감이 덜한 호칭어로 ‘언니’를 선택한다. 다만 (6가ㄴ)에서 쓰인 ‘언니’는 남성 화자가 여성 종업원을 칭하는 데에 쓰였다는 점에서, ‘언니’가 일반적인 용법에서 벗어나 남성이 여성을 부르는 데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논의에 대하여 김승화(2010:46)에서도 손님과 종업원의 사이에서 나이와 성별과 상관없이 의사 친족 호칭어 ‘언니’로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생성하며 구매 및 판매 행위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누나’의 경우 (6가ㄷ)에서 학교 선배인 여성을 부르는 데에 쓰였다. (6가ㄷ)에서는 ‘누님’이라는 존칭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 형태는 상대방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리고 ‘언니’와 마찬가지로 ‘누나’ 또한 화자와 상대방의 나이 차가 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선택되는 의사 친족 호칭어이다.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姐’는 ‘언니’, ‘누나’와 같이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형태가 분화되지 않고, 화자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여성을 통칭하는 데 사용한다. (6나ㄱ)에서 다른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와 같이 호칭 대상인 상대방의 성씨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6나ㄴ)에서는 ‘姐姐我’의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이 예문에서는 (4가ㄱ)에 나타난 ‘老娘’과 같이 말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화자 자신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용법은 ‘언니/누나’에는 없는 특징적인 용법이라 할 수 있다. (6나ㄷ)에서는 ‘小姐姐’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이 형태는 화자와 상대방의 나이 차와 관계없이 젊고 예쁜 여성을 부르는 데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姐’나 ‘姐姐’보다는 호칭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화자의 순위 남자 형제를 부르는 친족 호칭어인 ‘오빠, 형/哥’의 의사 친족 호칭어로서의 쓰임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7) 오빠, 형/哥

가. 오빠, 형

ㄱ. 근데 ○○ 오빠 이따 두 시에 어디 뭐~ 뭐~ 발표 준비하러 가야 된다고, 나 같으면은 내가 선배라면은 어...

ㄴ. 잘 생기면 다 오빠야!⁵³⁾

ㄷ. 누구지? 그 형 이름이 생각 안 나네...

- ㄹ. (여성이 남성에게) 형이라 부르고 반말했죠 형.
- ㄱ. 자욱이 형도 우리랑 같이 가지죠!
- 나. 哥
 - ㄱ. 是不是金虎哥他腿斷了就…… (김호 오빠/형의 다리가 부러져서.....)
 - ㄴ. 外賣小哥哥, 快遞小哥哥... (배달부 오빠/형, 택배기사 오빠/형)

(7) 가운데 (7가ㄱ), (7가ㄴ), (7나ㄱ)은 각각 ‘오빠’, ‘형’, ‘哥’에 상대방의 성명과 결합한 형태가 나타난 예문이다. 이들 예문은 대응 표현과 결합한 (7가ㄴ)과 함께 화자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으며, 화자와 친밀한 관계의 순위 남성을 이르는 일반적인 용법을 보여주고 있다. (7가ㄴ)에서는 잘생긴 사람을 ‘오빠’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오빠’는 상대방의 연령뿐 아니라 외모 또한 호칭어의 선택에 관여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7가ㄴ)은 ‘형’에 대한 예로, 여성 화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을 ‘형’이라 불렀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러한 용법은 ‘언니’의 예인 (6가ㄴ)과 같이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난 쓰임이라고 할 수 있다.

‘哥’의 경우, (7나ㄴ)에서 ‘小哥哥’의 형태로도 사용된다. 용법상으로는 (6나ㄴ)의 ‘小姐姐’와 같다. 최근 중국에서는 ‘姐/姐姐’, ‘哥/哥哥’보다 ‘小姐姐’, ‘小哥哥’를 사용하는 것이 중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의 자료를 통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이두(百度)’에 따르면 ‘小哥哥’, ‘小姐姐’는 화자보다 나이가 어린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이가 같은 상대방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용법을 벗어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화자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는 다섯 살 미만, 주로 두세 살 차이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姐/姐姐’, ‘哥/哥哥’보다는 대상의 범위가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외형적 나이와 외모 가운데 한 가지만을 고려하여 상대방을 ‘小哥哥’나 ‘小姐姐’로 부르는 특징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래 손아래 시누이를 부르는 데 사용하는 ‘아가씨’와 딸을 칭하는 데 쓰는 ‘姑娘’이 의사 친족 호칭어로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살펴보겠다. 말뭉치 자료에서 추출한 ‘아가씨/姑娘’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8) 아가씨/姑娘
- 가. 아가씨

53) 2016년 MBC 방영 드라마 ‘킬미, 힐미’ 참조.

- ㄱ. 아 저 이쁜 아가씨 있으니까 앞에서 영어로 소개를 해 보라고...
 - ㄴ. 애 엄마는 아니지만, 결혼한 아가씨. 아줌마?
 - ㄷ. 아가씨 여기 반찬 좀 주시죠!
- 나. 姑娘

- ㄱ. 當你和一位漂亮的姑娘坐在一起兩個小時，你會以為才過去一分鐘...
(예쁜 아가씨와 함께 두 시간에 앉으면 1분만 지난 것같이 느낄 것이다.)
- ㄴ. 姑娘, 給我上一瓶二鍋頭! (아가씨, 여기 이과두주 한 병 주세요!)

(8가ㄱ)과 (8나ㄱ)에 각각 나타난 ‘아가씨’, ‘姑娘’은 공통적으로 친족이 아닌 미혼의 여성이나 젊은 여성을 높여 부르는 데에 쓰인다. 이와 관련하여 (8가ㄴ)에서는 발화에서 언급한 대상이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아가씨’를 ‘아줌마’로 수정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8가ㄷ)과 (8나ㄴ)에 각각 나타난 ‘아가씨’와 ‘姑娘’은 모두 ‘아주머니/아줌마’, ‘이모’, ‘언니’와 같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8가ㄷ)의 ‘아가씨’는 (8나ㄴ)의 ‘姑娘’과 달리 상대방을 낮추어 부르는 경우라 할 수 있어, 그 의미는 다소 긍정적이지 않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사 친족 호칭어 사용 양상에서는 상당히 많은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이 드러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공통점으로는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친족 호칭어를 의사 친족 호칭어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연령, 신분, 친밀도 및 대화 상황과 장소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의도와 관련하여, 두 언어 모두 화자와 상대방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차이점으로는 첫째,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가운데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칭하는 데에도 쓰이는 ‘이모’, ‘언니’, ‘삼촌’의 경우, 상대방의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통칭적(通稱性)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어에서 이러한 용법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대부분의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는 ‘성+호칭어’나 ‘이름+호칭어’의 형태로 자주 쓰인다. 예컨대 ‘穆阿姨(목씨 이모)’, ‘方叔叔(방씨 삼촌)’, ‘金虎哥(김호 형/오빠)’ 등이 있다. 물론 한국어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사용하기는 하나, 호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누나/언니’와 ‘형/오빠’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인

‘姐’와 ‘哥’의 경우, ‘小哥哥’와 ‘小姐姐’의 형태로도 쓰인다. 이들 형태는 나이나 친밀도 보다는 주로 상대방의 외형상 나이와 외모를 포함한 외형적 특징에 따라 사용된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한국어에는 없는 용법이다.

3.3. 중국어의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차용

이 절에서는 중국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차용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에 관하여 강희숙(2018:1)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언어적 접촉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한류54’의해서 영향을 받아 중국어에서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를 차용하는 현상도 적지 않은 것이다.

중국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차용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선행 연구 성과에서 제시된 차용어의 유형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에서의 차용어 유형화에 대한 연구는 한신신·강희숙(2017)과 牛超慧(2018)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중국의 선행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차용 방식에 따라 ‘음역(音譯)’, ‘의역(意譯)’, ‘형역(形譯)’의 세 가지로 크게 유형화된다고 하였다.⁵⁵⁾ 그 외에 한신신·강희숙(2017:438)에서는 앞의 세 유형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결합한 ‘음의겸역(音意兼譯)’, ‘음형겸역(音形兼譯)’ 등이 있고, 그 하위 범주에 속하는 ‘축자번역(逐字翻譯)’, ‘음의쌍관(音意雙關)’ 등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牛超慧(2018:7)에서는 ‘반음역반의역(半音譯半意譯)’, ‘로마자 표기’와 같은 유형이 더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두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어에서 차용어의 유형은 큰 유형과 그 하위 유형까지를 포함한다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서영(2015)에서 정리한 중국의 차용어의 전반적인 유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54) 중국에서의 ‘한류’는 1990년대 중후반에 유행하기 시작되었으며,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의상, 게임, 음식, 성형 등 오락성 사물과 소비성 상품이 전파되고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포괄한다.

55) 牛超慧(2018:7)에서는 중국에서 쓰이는 차용어를 ‘음의 차용’, ‘형의 차용’, ‘의의 차용’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유형은 각각 소리, 형태, 의미와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한신신·강희숙(2017)에서의 유형화와 같다.

<표 11> 중국어의 차용어 유형화(한서영, 2015:267~268)

대분류	소분류		표기	예
음역	순수음역		한자	可可(cocoa), 葛朗瑪(grammar)
			한자/로마자	Q(cute), K士(case), 怕T(party)
	음의쌍관	부분 음의쌍관	한자	咖啡(coffee), 咖喱(curry), 檳榔(pinang), 駱駝(dada), 檸檬(lemon)
		전체 음의쌍관		愛斯不難讀(Esperanto), 脫口秀(talk show), 聲納(sonar), 引得(index)
의역	전체 의역		한자	話筒(microphone), 袋鼠(kangaroo)
	축자번역			炒年糕(떡볶이), 臉書(facebook)
	반축자번역 반의역			二維碼(QR code), 掃描器(scanner)
	반축자번역 반침가			紫菜卷飯(김밥), 卽插卽用(plug & play)
형역	비회귀		한자	蔘鷄湯(삼계탕), 研究(연구), 目的(목적), 歡迎(환영), 直接(직접), 單位(단위)
	회귀			革命(혁명), 教育(교육), 同志(동지), 經濟(경제), 精神(정신), 具體(구체)
음의겸역	반음 반의역	순수음역 반음반의 역	한자	冰香草拿鐵(ice vanilla latte), 焦糖瑪奇朵(caramel macchiato)
		음의쌍관 반음반의 역		霓虹灯(neon sign), 時裝秀(fashion show), 霹靂舞(break dance)
	반음 반침가	순수음역 반음반침 가		時尚芭莎(Bazaar), 桑巴舞(samba), 可頌面包(croissant)
		음의쌍관 반음반침 가		蘋果(bimbara), 鯊魚(shark), 保齡球(bowling), 可麗餅(crepe)
	반음 반의역 반침가			香濃巧克力布朗尼(brownie), 葡式蛋撻(egg tart)
음형겸역			한자+	T比特(terbit),

		로마자	IP卡(Internet Protocol card)
		로마자/숫자	SPA, APP, GPS, MP3, NBA, DIY
음형의겸역	반음형 반의역	한자+로마자	C語言(C language), A小調(A minor)
겸역	반음형 반침가		AC米蘭隊(AC Milan), HIV病毒(HIV)
	반음형 반음의겸역		維生素D(Vitamin D)

<표 11>에 따르면 ‘음역’, ‘의역’, ‘형역’과 이들 유형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결합한 유형인 ‘음의겸역’, ‘음형겸역’, ‘음형의겸역’ 외에도 ‘겸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들 일곱 가지 유형에서도 여러 하위 유형으로 세분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위의 유형화를 따라 중국어에서 일어나는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차용 현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차용 현상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의 수집은 중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百度)’ 검색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검색 대상은 제 3.1절에서 선정한 총 11개의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로, 조부모 항렬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항렬의 ‘어머니’, ‘아버지’, ‘아줌마, 아주머니’, ‘아저씨’, ‘이모’, ‘삼촌’, 동렬의 ‘누나, 언니’, ‘오빠, 형’ ‘아가씨’이다.

먼저 조부모 항렬의 의사 친족 호칭어 차용 양상을 ‘할아버지’, ‘할머니’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가운데 우선 ‘할아버지’의 차용에 대한 용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9) ㄱ. 去看爺爺嘍! 哈拉不几我來啦 (할아버지를 뵈러 가요.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ㄴ. 還了卡債, 只剩下3張哈拉布机毛了 (신용카드 대금을 갚았더니 300할아버지만 남았다)
 ㄷ. 哈啦不几和哈啦不你的撒浪嘿⁵⁶⁾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
 ㄹ. 肯德基halabuji看看我吧 (KFC할아버지 저를 좀 봐요)

56) ‘撒浪嘿’는 한국어 ‘사랑해’를 음역의 방법으로 중국어에서 차용하고 있다.

(9ㄱ~ㄴ)을 살펴보면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할아버지’를 음차한 ‘哈拉不几’, ‘哈拉布机’, ‘哈啦不几’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아버지’의 한국어 표준 발음은 [하라버지]이다. 따라서 중국어에서는 앞의 세 형태가 모두 [하라부지]와 유사하게 음차된 것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9ㄴ)과 같이 ‘할아버지’는 한자 표기형뿐 아니라 한어병음 표기형인 ‘halabuji’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이상의 ‘哈拉不几’, ‘哈拉布机’, ‘哈啦不几’, ‘halabuji’는 차용 유형에서 음역 가운데 순수음역에 해당하는 형태이다. 이 가운데 (9ㄴ)에서는 사람이 아닌 사물, 즉 지폐를 ‘哈拉布机’라고 칭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예문과는 비교되는 특이한 사용 양상을 보인다. 이는 100위안 지폐에 마오쩌둥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는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다⁵⁷⁾.

‘할아버지’가 중국어에서는 순수 음차의 방식으로 차용된다면,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다른 방식으로 차용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0) 哈啦不几和哈啦不你的撒浪嘿(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

(10)은 ‘할머니’가 ‘哈啦不你’로 차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哈啦不你’는 한어 병음으로 ‘halabuni’로 표기되는데,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는 괴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용 양상이 일어난 원인으로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할아버지’의 발음에 기반하여 그 반대말에 해당하는 ‘할머니’를 ‘할아버니’로 오인하여 ‘哈啦不你’로 차용되었다. 이는 과잉 일반화(overgeneralizat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 항렬 의사 친족 호칭어의 차용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부모 항렬의 의사 친족 호칭어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1) ㄱ. 以后哦莫尼還給腌泡菜嗎? (앞으로도 어머니께서 김치를 담가 주시나요?)
 ㄴ. 今早我是四十几的哦莫泥 (나는 오늘부로 40대의 어머니가 되었다)
 ㄷ. 金希澈的歐莫尼也很有綜藝感 (김희철의 어머니가 예능감이 좋다)
 ㄹ. 想吃阿媽妮的辣白菜土豆泥拌飯 (어머니의 김치와 감자 비빔밥이 먹고 싶다)

57) 이러한 특징에 따라 중국 사람들이 100위안 지폐를 ‘毛爺爺(모씨 할아버지)’로 부른다. 따라서 예문 (9ㄴ)에서는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를 차용한 ‘哈拉布机毛(모씨 할아버지)’의 형태로 실현된 것이다.

(11)에서는 중국어 모어 화자들이 ‘어머니’를 ‘哦莫尼’, ‘哦莫泥’, ‘歐莫尼’, ‘阿媽妮’ 등 네 가지 형태로 차용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어병음 표기의 경우 (11ㄱ)의 ‘哦莫尼’, (11ㄴ)의 ‘哦莫泥’는 ‘omoni’, (11ㄷ)의 ‘歐莫尼’는 ‘oumoni’로 ‘어머니’의 표준 발음과 유사하게 차용되었으며, (11ㄹ)의 ‘阿媽妮’는 ‘amani’로 앞의 세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阿媽妮’는 한국어의 ‘어머니’와 같은 중국의 소수민족 방언형 ‘阿媽⁵⁸⁾’가 의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阿媽’ 뒤에 ‘어머니’의 마지막 음절 ‘니’를 음차한 ‘妮’와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중국어 차용형은 총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바, ‘哦莫尼’, ‘哦莫泥’, ‘歐莫尼’는 음역 가운데 순수음역에 해당한다. ‘阿媽妮’의 경우, 음의검역 유형 가운데 반음 반의역, 그 가운데에서도 ‘음의쌍관 반음반의역’에 해당하는 형태이다.

한편, 위에서 설명한 ‘어머니’의 네 가지 중국어 차용형 ‘阿媽妮’는 나머지 세 형태보다 상호명이나 브랜드 등 일상생활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에 제시한 그림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한국어 의사 친족어 ‘어머니’의 차용 양상

[그림 1] 가운데 ①과 ③에서는 ‘阿媽妮’가 각각 식당과 호텔의 상호명으로 사용되었

58) ‘바이두 백과’에 따르면 ‘阿媽(ama)’는 중국어 어휘로, 주로 묘족, 동족, 요족, 사족, 여족, 태족 등 소수 민족에서 ‘어머니’를 뜻하는 통칭에 해당한다. 이에 관한 것은 阿媽(ama), 阿曼(aman), 曼(man), 嵐(lan) 등이 있다. (阿媽: 是漢語詞匯,通常以苗,侗,瑤,畚,黎,傣等民族對母親的統稱。一般稱為: 阿媽, 阿曼, 曼, 嵐 等, 阿媽在少數民族中是最常見的稱呼).

다. 그림 ②에서는 중국의 양념 야채절임 제품명으로 ‘阿媽妮’를 차용하였다. 특히 상품 포장을 살펴보면 상단에 한복을 입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한국 어머니의 김치’의 뜻을 지니는 ‘한마(韓媽)김치’가 인쇄되어 있어 한국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내용물은 한국의 김치와는 다른 중국의 양념 야채절임이지만, 한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임을 나타냄으로써 홍보 목적으로 한국어로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③에서는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어머니’와 그 차용형인 ‘阿媽妮’가 함께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간판 이름은 ‘阿媽妮度假酒店(어머니 리조트 호텔)’인 데 반하여 하단의 영문 상호명이 ‘어머니’의 표준 발음과 보다 유사한 표기인 ‘omoni’가 아닌 ‘阿媽妮’의 병음 표기인 ‘amani’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阿媽妮’가 ‘哦莫尼’, ‘哦莫泥’, ‘歐莫尼’보다 실생활에서 활발하게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버지’ 또한 ‘어머니’와 같이 순수 음차와 음의쌍관 반응반의역의 방식으로 각각 차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12) ㄱ. 我想讓阿巴基, 歐莫尼來我們家玩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
 ㄴ. 我給我阿爸基發了圖 (나는 아버지께 사진 한 장을 보냈다)

(12)에 제시된 예문에 제시된 ‘아버지’의 차용형은 모두 한어 병음으로 ‘abaji’라는 점에서 한국어의 ‘아버지’의 발음과 비슷하게 차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ㄱ)의 ‘阿巴基’는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아버지’의 순수음역으로 음차한 예인 한편, (12ㄴ)에서는 (11ㄷ)과 같이 음의점역 유형 가운데 반응 반의역, 그 가운데에서도 ‘음의쌍관 반응반의역’에 해당하는 형태이다. 다만, 이 예문에서의 ‘阿爸基’는 ‘阿爸’는 중국어의 방언 가운데 객가어(客家語)에서 ‘아버지’를 가리키는 친족 호칭어로, ‘阿爸基’는 ‘阿爸’에 ‘아버지’의 마지막 음절의 발음과 유사한 ‘基’를 결합하여 만든 형태로 추정된다.

위와 같이 ‘아버지’는 ‘어머니’와 같이 중국어에서의 차용 방식이 같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비격식 형태인 ‘엄마’는 중국어에서 차용되지 않았으나, ‘아빠’는 중국어에 차용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버지’와 ‘아빠’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차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②

[그림 2] 한국어 의사 친족어 ‘아버지’, ‘아빠’의 차용 양상

[그림 2]의 ①은 ‘아버지’, ②는 ‘아빠’가 중국의 일상생활에서 차용된 예를 볼 수 있다. ①에서는 ‘아버지’를 ‘阿爸基’로 차용하여 ‘아버지조선풍미냉면관(阿爸基朝鲜风味冷面馆)’이라는 식당 상호명으로 사용하였다. ②에서는 ‘阿爸多福基(아빠 떡볶이)’라는 상호명에서 알 수 있듯, ‘아빠’를 ‘阿爸’로 차용하여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그림 모두 식당 상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냉면이나 떡볶이 등과 같은 한국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라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위와 마찬가지로, ‘아주머니’ 또한 중국어에서 ‘아주머니’와 함께 비격식형인 ‘아줌마’ 또한 차용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용례는 아래와 같다.

- (13) 가. 아주머니: 吃了韓國阿祖莫尼做的很家常的韓料 (한국 아주머니가 만든 집 반찬을 먹었다)
나. 아줌마
ㄱ. 來健身的都是韓國的阿吉媽 (운동하러 온 사람은 다 한국의 아줌마)
ㄴ. 阿祖瑪 發型(아줌마 헤어 스타일)

(13가)에서는 ‘아주머니’를 ‘阿祖莫尼’로, (13나)에서는 ‘아줌마’를 각각 ‘阿吉媽’, ‘阿祖瑪’로 차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阿祖莫尼’는 한어 병음으로 ‘azumoni’로, ‘阿吉媽’, ‘阿祖瑪’는 각각 ‘ajima’, ‘azuma’로 표기될 수 있어 ‘아주머니’와 ‘아줌마’의 한국어 표준 발음과 유사하게 차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순수음역에 따른 형태에 해당한다.

중국의 일상생활에서는 ‘아주머니’와 ‘아줌마’ 가운데 ‘아줌마’의 차용형이 더 많이 쓰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阿祖瑪’라는 형태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음이 그 예이다.



①59)



②

[그림 3] 한국어 의사 친족어 ‘아줌마’의 차용 양상

[그림 3]의 ①, ②는 모두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아줌마’의 중국어 차용형이 식당 상호명으로 사용된 예이다. ①, ② 모두 ‘阿祖瑪’라는 형태가 사용되었으나, ②에서는 한어 병음표기 ‘azuma’의 로마자 표기인 ‘Ah Zuma’도 함께 사용되었다. 또한 ①에서는 김밥(紫菜包飯)을, ②에서는 한국식 고기구이를 취급하는 식당이라는 점에서 한국어 차용형을 통하여 한국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라는 점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아저씨’의 경우 중국어에서 다양한 형태로 차용되고 있음이 특징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4) ㄱ. “阿澤西! 拿渡撒浪⁶⁰⁾!” (아저씨! 나도 사랑!)
 ㄴ. 孔劉阿扎西 完美的理想型 (공유 아저씨, 완벽한 이상형)
 ㄷ. wuli⁶¹⁾ 阿加西~生日粗卡哈密達⁶²⁾~ (우리 아저씨~ 생일 축하합니다~)
 ㄹ. 來看鬼怪孔侑阿澤熙 (도깨비 공유 아저씨를 보러왔다)
 ㅁ. 對面的阿雜西打電話 (맞은편의 아저씨가 전화를 한다)

(14)에서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아저씨’의 차용 형태가 ‘阿澤西’, ‘阿扎西’, ‘阿加西’, ‘阿澤熙’, ‘阿雜西’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4ㄱ)의 ‘阿澤西’는 한어 병음

59) ‘紫菜包飯’은 한국의 음식인 김밥을 뜻하는 말로, ‘김’과 ‘밥’의 축자변역형인 ‘紫菜’과 ‘飯’, 그리고 조리법에 따라 ‘싸다’를 뜻하는 동사 ‘包’를 ‘반축자변역 반첨가’의 방법으로 합성하여 차용한 형태이다.

60) ‘拿渡撒浪’은 한국어 ‘나도 사랑’의 중국어 차용 형태이다.

61) ‘wuli’는 순수음역의 방법을 차용한 한국어 대명사 ‘우리’의 한어 병음 표기형이다.

62) ‘生日粗卡哈密達’는 한국어 ‘생일 축하합니다’의 중국어 차용 형태이다.

으로 ‘azixi’, (14ㄴ)의 ‘阿扎西’는 ‘azhaxi’로, (14ㄷ)의 ‘阿加西’는 ‘ajiaxi’로, 마지막에 (14ㄹ, 口)의 ‘阿澤熙’, ‘阿雜西’에서는 ‘azaxi’로 표기된다는 점에서 ‘아저씨’를 따라 순수음역의 방법으로 차용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중국의 실생활에서는 어떠한 차용형이 더 많이 사용될까? 그에 대한 예시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그림 4] 한국어 의사 친족어 ‘아저씨’의 차용 양상

[그림 4]에서 ‘아저씨’의 다양한 중국어 차용형 가운데 ①, ②에서는 ‘阿澤西’, ③에서는 ‘阿澤熙’가 각각 식당의 상호명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세 사례 모두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인 만큼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차용형을 상호명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모’ 또한 중국어에서 차용되고 있기는 하나, 다른 의사 친족 호칭어에 비해 차용형이 잘 사용되지 않으며, 사용되는 상황도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15) 全程姨母笑 (계속 이모 같은 미소를 짓는다)

(15)와 같이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이모’는 ‘姨母’로 차용되고 있으며, 이 형태는 중국에서도 사용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어머니의 자매를 부르는 친족 호칭어로서만 사용되나,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의사 친족 호칭어로서의 용법을 차용하여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15)에 제시된 예문은 한류(韓流) 열풍에 따라 중국 방송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여성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연하의 배우나 아이돌 가수가 출연하는 장면에서 짓는 미소를 뜻한다. 이 예문에서의 ‘姨母’는 한국어 ‘이모’와 같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여성을 전제하며, 스스로의 나이가 많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자조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이는 중국어 유행어 가운데 ‘이모 같은 머리스타일’을 뜻하는 ‘大媽發型’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자조하는 상황 외에 나이 든 여성에게 ‘이모’라 부르면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른 의사 친족 호칭어의 차용형과는 달리 쓰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비록 ‘姨母’가 다른 의사 친족 호칭어에 비하여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상호명으로 ‘姨母’가 사용되고 있다. 아래에 제시한 [그림 5]를 살펴보면,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의 상호명으로 ‘姨母’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한국어 의사 친족어 ‘이모’의 차용 양상

‘삼촌’도 다른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중국어 차용형과 같이 순수음역의 방식으로 차용이 이루어진다. 다만, 한자가 아닌 한어 병음으로 표기된 형태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16) 姑娘一直叫仲基samcun啊 (그 아가씨는 계속 송중기를 삼촌이라고 부른다).

(16)에서는 ‘삼촌’의 중국어 차용형이 한어 병음 표기인 ‘samcun’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중국어 한자에는 ‘삼촌’의 첫 음절인 ‘삼’과 발음이 유사한 것이 없고, 중국어에서는 /n/, /ŋ/ 외의 다른 음소가 받침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을 따라 한어 병음으로 대체하여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렬의 의사 친족 호칭어 ‘언니/누나’, ‘오빠/형’, ‘아가씨’가 중국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차용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어에서 차용된 ‘언니/누나’, ‘오빠/

형’ 또한 한국어와 같이 화자와 상대방의 성별에 따라 분화된 형태가 그대로 차용되므로, 여기에서는 ‘언니’, ‘누나’, ‘오빠’, ‘형’, ‘아가씨’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언니’는 본래 여성 화자가 순위의 여성을 이르는 데 사용되는 말이나, 중국어에 차용되면서 화자의 성별과 연령 구분 없이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을 칭하는 데 사용된다. 다음이 그 예이다.

- (17) ㄱ. 歐尼真滴太美了 (언니가 너무 예뻐요)
 ㄴ. IU歐妮是真的很优秀啊 (IU 언니가 너무 훌륭해요)

(17)의 두 예문 모두 중국어에서 ‘언니’가 순수 음차의 방식으로 차용된 형태인 ‘歐尼’, ‘歐妮’로 나타났다. 두 형태 모두 한어 병음으로는 ‘ouni’로 표기되기 때문에 발음에 차이는 없으나, [그림 6]과 같이 식당의 상호명으로 ‘歐尼’가 더 우세하게 쓰이는 편이다. 이는 다른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중국어 차용형과 같이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동렬 관계의 의사 친족 호칭어는 다른 의사 친족 호칭어와는 달리 친근한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①



②

[그림 6] 한국어 의사 친족어 ‘언니’의 차용 양상

한편 남성 화자가 자신보다 순위의 여성을 이르는 ‘누나’의 중국어 차용 양상은 ‘언니’에 비해 활발하지는 않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8) ㄱ. 努娜~普古西坡⁶³⁾ (누나~ 보고싶어)

63) ‘普古西坡’는 한국어 ‘보고 싶어’의 중국어 차용 형태이다.

- ㄴ. 我永遠喜歡nuna (나는 누나를 영원히 좋아해요)
- ㄷ. 努那撒浪嘿啲 (누나 사랑해요)

(18)에서는 ‘누나’가 중국어에서는 한자와 로마자로 표기되는데, 한자로 표기된 것은 (18ㄱ, ㄷ)에서의 ‘努娜’, ‘努那’가, 로마자로 표기된 것은 (18ㄴ)의 ‘nuna’가 있다. 이 가운데 로마자 표기형인 ‘nuna’는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중국인이 각 음절에 대응되는 한자를 찾지 못하여 한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한 것이다. 나머지 한자 표기형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고루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아래 [그림 7]에서는 ‘努娜’를 한국 식당의 상호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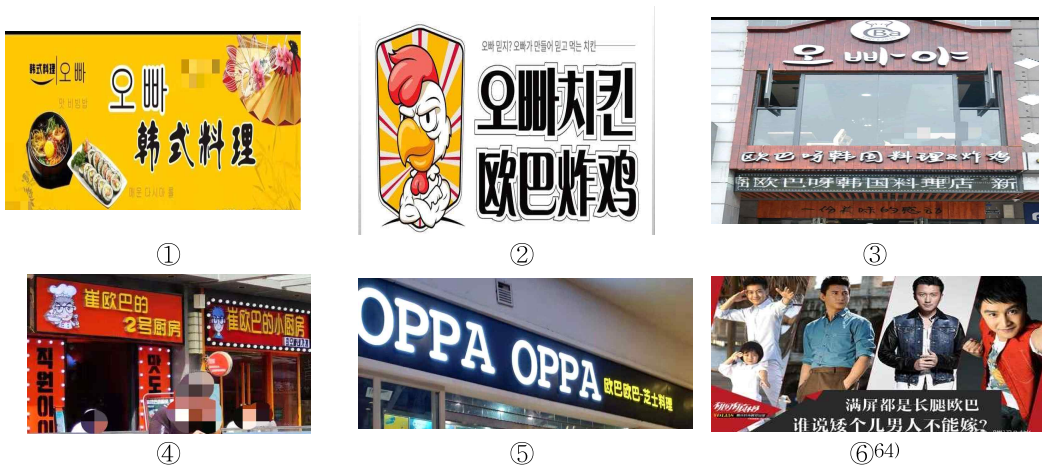


[그림 7] 한국어 의사 친족어 ‘누나’의 차용 양상

‘오빠’는 한국어 친족 호칭어의 중국어 차용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된다. ‘오빠’는 ‘언니’와 비슷하게 화자의 성별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외모가 멋진 남자를 칭할 때 사용되며 중국어 차용형이 한자와 로마자, 한어 병음 표기형의 세 가지로 나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19) ㄱ. 歐巴終於回來了 (오빠가 드디어 돌아왔다)
- ㄴ. 偶吧下周見 (오빠 다음주에 만나요)
- ㄷ. 看見很多帥氣的偶巴 (잘 생긴 오빠를 많이 봤다)
- ㄹ. 屋里ouba回來了 (우리 오빠 돌아왔어요)
- ㅁ. 鎮赫oba 加油 (진혁 오빠 파이팅)
- ㅂ. 朱一龍obba, 撒浪嘿啲 (주일롱 오빠, 사랑해요)
- ㅅ. 正峰oppa在里面也太帥了 (정봉 오빠 거기서 너무 멋져요)

(1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빠’는 중국어에 차용되면서 그 형태를 한자로 표기한 것과 로마자로 표기한 것으로 나뉘어 알 수 있다. 한자 표기형은 (19ㄱ, ㄴ, ㄷ)에 나타나며, 각각 ‘歐巴’, ‘偶吧’, ‘偶巴’로 실현되고 있다. 이들 차용형의 한어 병음은 ‘ouba’로, (19ㄷ)에서 한어 병음 표기가 나타나는 한편, 로마자 표기형은 (19ㄱ, ㄴ, ㄷ)에서 각각 ‘oba’, ‘obba’, ‘oppa’로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빠’의 차용형이 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곧 높은 사용 빈도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도 아래에 제시된 [그림 8]에서 식당의 상호명뿐 아니라 ⑥과 같이 여성의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남자 연예인들을 칭하는 데에 ‘歐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8] 한국어 의사 친족어 ‘오빠’의 차용 양상

‘오빠’와는 대조적으로 ‘형’은 한어 병음 표기형 하나만 존재한다. 이에 대한 예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20) hiong~ 要好好的噢 (형~ 잘 있어야 돼요)

(20)에서는 ‘형’의 차용형이 한어 병음 표기형인 ‘hiong’으로 표기되어 있다. ‘hiong’은 ‘오빠’의 차용형에 비하면 사용 빈도가 극히 적은 편이다. 이는 ‘오빠’의 차용형이 중국

64) 하단의 문구는 ‘스크린에는 운동 다리 긴 오빠들뿐인데, 누가 키 작은 남자들은 결혼을 못한다고 했나?’의 뜻이다.

어 화자의 성별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고루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빠’는 본래 한류의 영향으로 아이돌 팬덤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사이에서만 쓰이다가 높은 사용 빈도를 보임으로써 일반 대중에게도 노출된 결과 사용층의 확장을 경험한 반면, ‘형’은 그렇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아가씨’는 나이 든 화자가 젊은 여성인 상대방을 부를 때 쓰는 의사 친족 호칭어로, 중국어에 차용되면서 화자의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외모가 아름다우며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은 여성을 부를 때 사용한다. 이는 3장에서 소개한 것 가운데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언니, 누나’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가운데 ‘小姐姐’의 용법과 유사하다.

(21) ㄱ. 耶奔⁶⁵阿囍西 (예쁜 아가씨)

ㄴ. 這個阿囍系太可愛了吧 (이 아가씨가 너무 귀여워요)

(21)에서는 ‘아가씨’를 순수음차의 방식에 따라 한어 병음으로 표기되는 ‘agaxi’라는 발음을 ‘阿囍西’, ‘阿囍系’로 표기하고 있다. 이들 형태의 용법 가운데 ‘아가씨’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여성을 칭하는 데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는 한류가 중국에 유입하면서 한국 사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⁶⁶⁾ 특히 이러한 용법으로 인하여 호칭 대상의 제한이 적은 편인 ‘언니’의 차용정보보다 사용 빈도가 적은 편이나, 아래의 [그림 9]와 같이 실생활에서 미용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상호명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림 9] 한국어 의사 친족어 ‘아가씨’의 차용 양상

이상으로 중국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차용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차용 방식 및 표기 방식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65) ‘耶奔’는 한국어 ‘예쁜’의 중국어 차용 형태이다.

66) 이와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옛날에 미혼의 양반집 딸을 이르는 말로 정의한 바 있다.

다. 우선 차용 방식에서는 대부분 한국어 형태의 발음을 순수음역의 방식에 따라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 외에도 ‘어머니’, ‘아버지’의 차용형 가운데 ‘阿媽妮’, ‘阿爺基’는 각각 ‘어머니’, ‘아버지’에 대응되는 중국어 단어와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마지막 음절의 소리를 음차한 한자를 합성한 음의쌍관 반음반의역의 방식에 따라 차용된 것도 있었다. ‘할머니’나 ‘이모’의 경우 중국어 차용어 분류 체계에는 없는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할머니’의 중국어 차용형 ‘哈啦不你’는 과잉일반화에 따른 오형태인 한편, ‘이모’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 ‘姨母’는 본래 친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호칭어였으나, 한국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사 친족 호칭어로서의 용법을 차용하여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기 방식에서는 한자, 로마자, 한어 병음으로 나뉘는데, 주로 한자 표기가 압도적이다. 반면 ‘halabuji’, ‘samcun’, ‘nuna’, ‘ouba’, ‘hiong’과 같이 한어 병음으로 표기되거나, ‘obba’, ‘oppa’와 같이 로마자 표기를 택하여 차용되는 형태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 한국어 발음에 대응되는 한자를 찾지 못하거나, 차용 및 사용 주체가 대부분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중국어 단일 언어 사용자들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사용에서는 의사 친족 호칭어의 차용형이 주로 한국 음식 등을 판매하는 가게의 상호명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이는 가게의 상호명을 통하여 한국과 관련된 것을 취급하는 가게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2>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차용 형태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차용 형태 ⁶⁷⁾	사용 빈도	차용 방식	표기 방식
할아버지	哈拉不几	103	순수음역	한자
	哈啦不几	40		
	哈拉布机	26		
	halabuji	33	순수음역	한어 병음
할머니	哈啦不你	47	과잉일반화에 따른 오형태	한자

어머니	哦莫尼	597	순수음역	한자
	哦莫泥	40		
	歐莫尼	462	음의검역 (음의쌍관 반음반의역)	
	阿媽媽	751		
아버지	阿巴基	60	순수음역	한자
	阿爸基	649	음의검역 (음의쌍관 반음반의역)	
아주머니	阿祖莫尼	8	순수음역	한자
아줌마	阿吉媽	744	순수음역	한자
	阿祖瑪	573		
아저씨	阿澤西	768	순수음역	한자
	阿扎西	752		
	阿加西	1,238,649		
	阿架西	67		
	阿雜西	63		
이모	姨母	23,097,804	용법 차용에 따른 의미 확장	한자
삼촌	samcun	9	순수음역	한어 병음
언니	歐尼	49,410,367	순수음역	한자
	歐妮	692		
누나	努那	817	순수음역	한자
	努娜	770		
	nuna	778	순수음역	한어 병음
오빠	歐巴	76,078,187	순수음역	한자
	偶吧	13,653,134		
	偶巴	716		
	oba	742	순수음역	로마자
	obba	775		
	oppa	965		
	ouba	664		
형	hiong	886	순수음역	한어 병음
아가씨	阿噶西	445	순수음역	한자
	阿噶系	48		

67) 2019년 11월 1일 기준.

<표 12>에서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중국어 차용형 가운데 ‘언니’, ‘오빠’에 해당하는 형태의 사용 빈도가 압도적인데, ‘언니’, ‘오빠’는 ‘누나’, ‘형’과 함께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요와 아이돌 가수가 전파된 이후에 중국어에 차용된 말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 아이돌 팬덤의 영향 또한 받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이 주축이 되는 아이돌 팬덤에서는 ‘언니’, ‘오빠’를 ‘누나’, ‘형’보다 더 높은 빈도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언니’, ‘오빠’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외모가 수려한 남자나 여자를 일컫는 데에 쓰이는 것으로 용법의 확장이 이루어진 반면, ‘누나’, ‘형’은 ‘언니’, ‘오빠’의 사용 빈도에 밀려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언니’, ‘오빠’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의사 친족호칭어로는 ‘이모’의 중국어 차용형의 경우 또한 한류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한류는 1978년부터 중국의 개방 정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에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가시화되었다. 이때 중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향유하였던 사회 계층이 10~20대 여성으로, 시간이 흘러 현재에는 30~40대 이상이 된 당시의 여성들이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자조하기 위하여 ‘姨母’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설명한 것 외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언니’, ‘오빠’, ‘이모’의 차용형과는 달리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언니’, ‘누나’, ‘오빠’, ‘형’ 외의 의사 친족 호칭어가 상대방의 실제 나이 또는 외견상 나이가 화자와 차이가 클 때 선택된다는 점에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가 반영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와는 달리 중국어에 차용되면서 사용 연령층이 확대된 ‘언니’, ‘오빠’는 본래 자신과 같은 항렬의 자매나 형제를 부르는 친족 호칭어였다는 점에서, 그러한 용법이 의사 친족 호칭어로서의 쓰임에도 그대로 나타나면서 화자와 상대방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고 친밀도를 더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중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양상과 용법을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여 대조 분석하고, 오늘날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차용 현상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한·중 두 언어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논의 내용을 장별로 요약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한·중 두 언어에서 사용되는 친족 호칭어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오늘날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 친족 호칭어의 유형 및 용법을 대조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연구는 원래 친족을 대상으로 사용되던 친족 호칭어가 비친족에게도 사용되는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이 한국어에서뿐 아니라 중국어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특히 중국어에서는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를 차용하는 현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선행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다음 연구 대상 및 방법을 설계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논의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친족 호칭어의 개념과 체계에 대하여 대조 분석한 후, 의사 친족 호칭어의 발달 요인을 고찰하였다. 친족 호칭어의 개념은 한국어와 중국어 사전에서 제시하는 ‘호칭어’의 개념과 유형을 살핀 후, ‘친족’과 ‘친척’의 차이를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친족 호칭어를 ‘가족 제도를 바탕으로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사이에 존중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부름말’이라고 재정의하였다.

친족 호칭어 체계의 경우 한국어 친족 호칭어 체계는 국립국어원(2011)의 《표준 언어 예절》을, 중국어 호칭어 체계는 고륙양(2005)에서 제시된 것을 바탕으로 ‘부계 친족 호칭어’, ‘모계 친족 호칭어’, ‘부부계 친족 호칭어’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대조하였다. 의사 친족 호칭어는 크게 ‘대화 참여자 및 대화 상황에 따른 요인’과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요인’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따라 발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와 語料庫의 말뭉치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양상을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대조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한·중 두 언어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의사 친족 호칭어 사용 양상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첫째, 두 언어 모두 친족 호칭어를 의사 친족 호칭어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선택 요인으로는 상대방의 연령, 신분, 친밀도와 장소 등이 있었다. 둘째, 의사 친족 호칭어의 사용 의도와 관련하여, 두 언어 모두 화자와 상대방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차이점으로는 첫째,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중 ‘이모’, ‘언니’, ‘삼촌’의 경우 서비스 업종에서 쓰일 때, 상대방의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통칭적(通稱性)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다. 둘째, 중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는 대부분 ‘穆阿姨(목씨 이모)’, ‘方叔叔(방씨 삼촌)’, ‘金虎哥(김호 형/오빠)’ 등과 같이 ‘성씨/이름+호칭어’ 또는 ‘성명+호칭어’의 형식으로 쓰인다. 이들 형식은 한국어에서도 사용되기는 하나, ‘할머니’, ‘오빠’, ‘아저씨’와 같이 호칭어만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에서만 자주 나타나지는 않는다. 셋째,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 가운데 ‘언니/누나’, ‘오빠/형’과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인 ‘姐’, ‘哥’가 ‘小哥哥’와 ‘小姐姐’라는 신조어로 사용된다는 점은 한국어에서는 없는, 중국어만의 특징에 해당한다.

또한 한서영(2015:267~268)과 牛超慧(2018)에서 제시한 중국어에서의 차용어 유형과 중국의 대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검색 결과를 활용하여 중국어에서의 한국어 의사 친족 호칭어의 차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부분에서는 차용 방식, 표기 방식, 실제 사용 양상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차용 방식에서는 대부분 한국어 형태의 발음을 따른 순수음역의 방식을 따라 차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차용형 가운데 ‘阿媽妮’, ‘阿爸基’는 음의쌍관 반음반의역의 방식에 따른 차용형으로 보였다. 또한 ‘할머니’의 차용형 ‘哈啦不你’는 ‘할아버지’의 차용형에 이끌린 과잉 일반화에 따른 오형태이며, ‘이모’는 본래 중국어에서도 ‘姨母’로 쓰였던 만큼 한국어에서의 용법을 차용하여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기 방식에서는 한자, 로마자, 한어 병음 가운데 한자 표기가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자 표기형이 한어 병음이나 로마자 표기형과 공존하는 원인은 실제 한국어 발음에 가까운 음을 지닌 한자를 찾지 못하거나, 차용 및 사용 주체가 대부분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중국어 단일 언어 사용자들이기 때문으로 보였다.

실제 사용에서는 의사 친족 호칭어의 차용형이 가게의 상호명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주로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의 간판에 나타나는데, 이는 가게의 상호명으로써 한국과 관련된 것을 취급한다는 특징을 드러내려는 업주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사 친족 호칭어 사용 양상 및 기제는 유교에서의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라(人與人之間相互親愛)’를 강조하는 ‘인(仁)’과 한국과 중국의 ‘가국동구(家國同構)’라는 사회 모델을 근간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국동구’는 가족과 국가가 구조상의 공통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중국은 고대부터 나라를 ‘대가족(大家族)’이라는 비유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친족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중국과 같이 ‘대가족’의 관념도 형성되었다. 또한 서양에서 가정관념(家庭觀念)에 대해서 독립과 개성의 자유를 숭상하는 반면에 한국과 중국에서는 모두 집단과 단체정신을 숭상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족공동체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고 ‘예(禮)’를 중시한다. 그러므로 두 나라에서 의사 친족 호칭어로 친근하게 부르면 ‘예(禮)’의 바른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 두 언어에서 사용되는 친족 호칭어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오늘날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 친족 호칭어의 유형 및 용법을 대조하여 살펴봄으로써 한국어와 중국어 두 언어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말뭉치 자료의 제약으로 의사 친족 호칭어의 전체적인 사용 양상을 미처 살피지 못하였을뿐더러 현시점에서는 선행 연구 성과에서 제시한 바와 달리 사용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포착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본 연구의 한계는 보다 다양한 구어 자료를 활용하여 친족 호칭어의 용법 및 의미의 변화를 다룸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는 다음을 기약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강소산·정은주(2013), <한국어 교육에서 호칭어·지칭어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제9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pp.363~389.
- 강신항(1967), <현대국어의 가족 명칭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제4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pp.75~117.
- 강희숙(2002), <호칭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제10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pp.1~24.
- 강희숙(2018), <중국의 한국 대중문화 접촉과 언어 차용 현상 연구>,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 2018-10, 한중인문학포럼, pp.52~62.
- 고륙양(2005), <현대 한국어와 중국어의 호칭어 대조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륙양(2007), 《한·중 호칭어의 대조연구》, 박이정.
- 국립국어원(1992), 《표준화법 해설》,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https://ithub.korean.go.kr/user/main.do>).
- 국립국어원(2011), 《표준 언어 예절》.
- 김광순(2015), <친족어의 호칭어로서 확장, 사용 양상 -{형}, {누나}, {오빠}, {언니}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제48권, 한국어의미학회, pp.175~201.
- 김미라(2010), <韓中 呼稱語 對照- 社會 呼稱語 中心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화(2010), <한국어 친족 호칭 ‘언니/누나’, ‘오빠/형’의 의미 연구>, 한국어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선(2012), <국어 친족 호칭의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한 연구 : ‘아줌마/아주머니’, ‘어모’, ‘언니’, ‘아가씨’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태(2005), <현대중국어 친족 호칭어의 의미 확대와 사용상의 결함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제31호, 중국어문학연구회, pp.187~210.
- 김혜진·김화·이진주·카와노유카(2015),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친족 호칭어의 사용 양상 - 한국어 호칭어 교육 내용 구안을 위한 교육 자료>, 《언어와 문화》 제11권 3호, pp.117~146.
- 김희숙(2000), <청자대우 ‘해요체’ 사용과 사회적 집단과의 상관성>, 《사회언어학》 제8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pp.167~204.

- 김희숙(2003), <현대한국어 호칭어의 역설: 2차 사회 내 늘어나는 친족어사용>, 《사회언어학》 제11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pp.55~94.
-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 동 흠(2010), <한·중 여성호칭어의 사회언어학적 대조 연구-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량 흥(2013), <연변지역 친족 호칭어 사용양상 고찰>, 《중국조선어문》 제188권,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pp.18~25.
- 류재봉(1997), 《호칭과 지칭 예절》, 예영커뮤니케이션.
- 박갑수(1989), <국어호칭의 실상과 대책>, 《국어생활》 제19호, 국어 연구소, pp.10~32.
- 박은정(2012), <한국어 학습자의 친족 호칭어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운(1997), <한국어 호칭어 체계>, 《사회언어학》 제5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pp.507~527.
- 서정수(1984), 《존대법의 연구 현행 대우법의 체계와 문제점》, 한신문화사.
- 양영희(2015), 《사회언어학 관점에서의 국어 호칭어 사적 전개 양상 연구》, 역락출판사.
- 왕문림(2017), <韓·中 女性 擬似 親族 呼稱語 對照 研究- 韓·中 女性の 社會的 地位를 中心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한석(2005), <호칭어의 주요 이론과 연구 시각>, 《한국 사회와 호칭어》, 역락출판사.
- 왕혜방(2009), <한중의 호칭어의 대한 대조 연구- 특히 친척 호칭어를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예화(2004). <현대 한국어와 중국어의 호칭 대조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상철·안혜리·정현목·김준술·정강현(2005), 《한류 DNA의 비밀 : 소프트 파워, 소프트 코리아의 현장을 찾아서》, 생각의 나무.
- 이건범·김하수·백운희·권수현·이정복·강성곤·김형배·박창식(2018), 《나는 이렇게 불리는 것이 불편합니다》, 한겨레출판.
- 이 민(2008). <한국어호칭어·지칭어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화(2002), <공공 생활에서의 한국어 호칭어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표(1986), <국어친척어의 대조분석>, 《한국어문교육》 제1권, 고려대학교한국어문

- 교육연구소, pp.97~113.
- 이익섭(1994), 《사회언어학》, 민음사.
- 이영천(2010), <한중 호칭어와 지칭어의 대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복(2001). 《국어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 태학사.
- 장 평(2016), <한·중 친족 호칭어의 확대 사용 대조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 환(2016), <한중 친족 호칭어의 확대 사용 양상과 문화적 의미 대비 연구>, 연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 흥(2005). <한국어와 중국어의 친족 호칭 대조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가동(2018), <한·중 20대 화자의 친족 호칭어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초안비(2013). <한국 친족형(親族型)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희(2005), <조선족의 친족 호칭어·지칭어 연구: 연변 훈춘 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희(2011),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연구: 친족 호칭어 대응형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제2011권 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221~229.
- 최재석(1991), 《한국의 친족용어》, 민음사.
- 판 영(2019), <중국 누리꾼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차용표현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서영(2015), <중국어 차용어 분류에 대한 운율 형태론적 접근>, 《중국문법》 제83권, 한국중국어문법학회, pp.257~301.
- 한신신·강희숙(2017), <중국어에 나타난 한국어 차용 현상 분석- 웨이보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65권, 국어문학회, pp.433~467.
- 허봉자(2007),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어법 사용 오류 분석>, 《이중언어학》 35권, 이중언어학회, pp.361~383.
- 황보나영(1993), <현대국어 호칭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적륜, (1975), *Role of sociolinguistic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with reference to Korean and English terms of address and levels of deferen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 XINYANPING(2015), <한국어 친족 호칭어 "오빠/형, 언니/누나"의 사용 양상 연구 : 2010년 이후 드라마 대본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YAN MENG(2018),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친족 호칭어 확대 사용 교육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胡曉清·李淑娟(2007), <漢韓擬親屬稱謂語類型學對比研究>, 《중국인문과학》 제37권, 중국인문학회, pp.255~271.
- 金晨(2015), <중국의 인터넷 신문을 통해 본 한국어 사용 양상 및 어휘·표기 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載勝(1999), <韓·中 대비 호칭어 사용에 관한 연구>, 《대학원논총》 제14권 12호, 전남대학교 대학원, pp.89~123.
- 牛超慧(2018), <현대 중국어의 한국어借用 樣相에 대하여>,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aun, Friederike(1988), *Terms of Address: Problems of Patterns and Usage in Various Language and Cultures*, Berlin: Mouton de Gruyter.
- Evans-Pritchard, Edward Evan, (1948), *Nuer modes of address*, Entebbe: The Uganda journal 12. 166-171.
- 安英姬(1985), <漢朝語親屬稱謂詞對比>,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제2권, pp.38~53.
- 曹煒(2005), <現代漢語中的稱謂語和稱呼語>, 《江蘇大學學報》 제2권, 蘇州大學文學院, pp.62~69.
- 陳松岑(2005), 《禮貌語言》, 商務印書館.
- 陳月明(1990). 《寧波大學學報(人文科學版)》, pp 63~72.
- 郭繼懋(1995), <常用面稱及其特点>, 天津南開大學漢語言文化學院.
- 衡志强(1994), <稱呼語的類型及其語用特點>, 《文化與交際》, pp.296~430.
- 胡明楊(2011), 《語言學論文集》, 商務印書館.
- 胡士云(2001), 《漢語親屬稱謂研究》, 商務印書館.
- 金炫兌(2001), <漢語社會稱謂語研究>. 上海師範大學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教育部語言文字應用研究所計算語言學研究室, 語料庫在線(www.cncorpus.org).
- 李厚一(1997), <韓漢親屬稱謂對比分析-漢語對韓語親屬稱謂的影響>, 韓中中語中文學會.
- 李彥春(2000), <令留學生頭疼的稱呼>, 《北京師範大學學報》 제6권, 北京師範大學漢語文化學院, pp.122~126.
- 李樹新(1990), <現代漢語稱謂詞與中國傳統文化>, 《內蒙古社會科學(文史哲版)》 제3권, 內蒙古大學中文系, pp.118~121.

- 劉靜(2006), 《文化語言學研究》, 中華書局.
- 劉居紅(2008), <現代漢語口語中親屬稱謂語的泛化>, 《高等函授學報》 제8권, 喀什師範學院 漢教部, pp.5~14.
- 劉慧瑤(2010). <現代漢語稱呼語的內涵及分類>, 《中國科教創新導刊(語言學研究)》 제25권, 河北經貿大學, p:78.
- 馬宏基(1998), 《稱謂語》. 新華出版社.
- 么孝穎(2008), <稱謂語=稱呼語嗎? -對稱謂語和稱呼語的概念闡釋>, 《外語教學》 제29권 4호, pp.20~24.
- 潘攀(1998), <論親屬稱謂語的泛化>, 《語言文字應用》 第2期, pp.36~40.
- 陶立潘(1987), 《民族學概論》. 民族大學出版社.
- 王娜(2006), <現代漢語親屬稱謂語的泛化研究>, 曲阜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 吳穎慧(1992), <建國以來擬親屬稱呼的變化>, 《語文建設》 제12권.
- 張魯宁(2001), <從文化,語用學,模糊語言理論看漢語社會稱謂語>, 《重慶師專學報》 제4권, 四川外語學院研究生部, pp.49~53.
- 周 健(2001), <漢語稱謂教學探討語言教學与研究>, 《語言教學与研究》 제4권, 廣州暨南大學華文學院, pp.31~38.
- 祝曉瑾(1990), <漢語稱呼研究- 一張社會語言學的稱呼系統圖>, 《北京大學學報(英語語言文學專刊)》.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2016), 《現代漢語詞典(第7版)》, 商務印書館.
- 中商產業研究院, 中商情報網(<http://www.askci.com>).
- 在線漢語字(<http://xh.5156edu.com/index.php>), <中國血統關係稱謂大全>.